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338호 【루계 제24751호】 주체103(2014)년 12월 4일 (목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사 설

전당, 전군, 전민이 총동원되여 온 나라를 수림화, 원림화하자

오늘 우리앞에는 중대하고도 절박한 과제가 나서고있다.

얼마전 중앙양묘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벌거벗은 산림을 그대로 두고 이제 더는 물려설 길이 없다고 하시면서 전후복구건설시기 온 나라가 떨쳐나 재더미를 털고 일떠선것처럼 산림복구를 자연과의 전쟁으로 간주하고 전당, 전군, 전민이 총동원되여 산림복구전투를 벌리자고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이것은 나라의 만년대계를 위한 산림조성사업에 최대의 힘을 넣어 조국강산을 만복의 터전으로, 청춘락원으로 빛내이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철석같은 의지의 과시이다. 여기에는 **김정일**애국주의를 소중히 간직하고 당이 번개를 치면 산악같이 떨쳐나 우뢰로 화답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에 대한 크나큰 믿음과 기대가 맥박치고있다.

령도자의 결심은 곧 선군혁명총진군대오의 표대이며 조선의 실천이다. 부강조국건설사에 특기할 거창한 대자연개조전투, 온 나라의 모든 산을 수림화, 원림화해야 할 산림복구전투의 포성이 울렸다. 당의 전투적호소따라 조국이 부르는 높고낮은 산발들에 너나없이 달려나가 한그루의 나무라도 더 심고 가꾸는것은 이 땅에 생을 둔 모든 사람들의 숭고한 의무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산림조성과 보호관리사업을 잘하여 온 나라를 수림화, 원림화하여야 합니다.》

산림조성과 보호관리사업에 전당, 전군, 전민이 떨쳐나서는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웅지를 빛나게 실현하기 위한 더없이 중요한 사업이다.

온 나라에 푸른 숲 설레이게 하고 모든 산을 황금산, 보물산으로 만드는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필생의 념원이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조국산천을 끝없이 아끼고 사랑하시며 전화의 불길속에서 애어린 잣나무들을 정성다해 심으시고 한생토록 산림조성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신 절세의 애국자이시다. 고난의 행군시기 나라의 산림자원이 줄어드는것을 누구보다 가슴아파하시면서 온 나라를 수림화, 원림화하실 원대한 구상을 펼치시고 국토관리총동원운동을 발기하시였으며 생애의 마지막시기에도 울창한 오가산자연보호구를 찾으신 어버이장군님의 거룩하신 영상을 우리는 영원히 잊을수 없다. 최전연고지로부터 최북단의 험준한 령에 이르기까지, 인적드문 길가에 곱게 피여난 코스모스에 이르기까지 우리 장군님의 애국의 숨결이 뜨겁게 스며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한치의 드림도, 한걸음의 양보도 없이 끝까지 관철하는것을 제일신조로 내세우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전당, 전군, 전민을 산림조성과 보호관리사업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다.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첫 식수절에 인민군장병들과 함께 종비나무와 목련을 심으시고 사회주의국토건설대강과 국토관리총동원운동열성자대회를 마련해주시였으며 새 품종의 잔디를 비롯한 지피식물이 온 나라를 뒤덮도록 정력적으로 이끄신분이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우리 조국의 산과 들, 바다를 로동당시대와 더불어 길이 빛날 황금산, 황금벌, 황금해로 전변시키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결심과 의지는 확고부동하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참된 전사, 제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진정한 전우, 동지라면 누구나 오늘의 산림복구전투에 깨끗한 량심과 헌신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야 한다.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조선을 풍요하고 백화만발한 사회주의무릉도원으로 전변시켜야 할 성스러운 임무가 다름아닌 우리 세대에 지워져있다.

오늘의 산림복구전투는 사회주의수호전, 인민의 삶의 수호전이며 조국의 미래를 위한 성스러운 투쟁이다.

산림은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나라의 귀중한 재부이며 대대손손 물려가야 할 행복의 밑천이다. 일시적인 난관에 포로되여 산림을 제대로 가꾸지 않고 후대들에게 빈껍데기산을 넘겨주는것보다 더 큰 죄악은 없다. 산림조성과 보호관리사업에 우리의 영원한 삶의 터전을 반석같이 다지고 대를 이어 강성번영을 이룩해나갈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가 있다.

우리가 잘사는것을 바라지 않는 온갖 적대세력들은 지금 서로 야합하여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에 광분하고있다. 제재와 봉쇄의 포위환을 끈질기게 좁혀 우리 인민이 사회주의신념, 애국의 전통을 스스로 저버리게 하려는것이 원쑤들의 비렬한 술책이다. 적들이 발악적으로 미쳐날뛰고 고난이 겹쌓인다고 하여 선렬들이 물려주고 자신들이 피땀으로 쟁취한 전취물들을 말아먹을 우리 군대와 인민이 아니다. 허기져 쓰러지면서도 누가 알아주건말건 깊은 산중에서 조국의 거목들을 가꾸며 한생을 바쳐가는 열렬한 애국자들이 이 땅 그 어디에나 있다.

푸르러 설레이는 울창한 산림에는 애국의 넋과 열정, 민족의 밝은 전도가 비끼게 된다. 천만군민이 당의 부름을 높이 받들고 산림복구전투의 영웅서사시를 수놓아갈 때 조국의 산발들은 력사의 사나운 광풍을 막아주는 조국수호의 성새로,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한 보루로 거연히 솟아 빛날것이다.

산림이 국토의 거의 80%를 차지하고있고 강성국가건설이 더욱더 심화되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나무심기와 보호관리사업에 더욱더 큰 힘을 넣을것을 요구하고있다. 강성국가건설의 진군속도가 빨라질수록 목재와 섬유, 종이 등 인민생활향상과 경제발전에 필요한 자재와 원료를 보장해주는 귀중한 자연부원인 산림이 차지하는 몫은 대단히 크다. 최근년간 지속되고있는 큰물과 왕가물에 의한 자연피해를 막자고 해도 그렇고 환경을 보호하자고 해도 산에 나무가 많아야 한다. 정보당 축적량이 500㎥인 산림이 200~250t의 물을 잡아 토지를 보호할뿐만아니라 많은 수분을 증발시켜 대기습도와 온도를 조절해주며 바람을 막아주고 먼지와 소음, 세균량을 줄여준다는 자료는 이 사업의 절박성을 다시금 깨우쳐주고있다.

나무심기와 보호관리사업은 나라의 전령토에서 진행되는 사업인것만큼 전당, 전군, 전민이 총궐기해나서야 성과를 거둘수 있다. 지금이야말로 산림조성과 보호관리사업을 나라와 민족의 장래운명,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와 잇닿아있는 중대사로 여기고 이 사업에 누구나 한몸을 서슴없이 내대야 할 시기이다.

우리는 《온 나라를 수림화, 원림화하자!》는 애국의 구호밑에 산림조성과 보호관리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새로운 주체100년대 황금산의 새 력사를 창조해나가야 한다.

산림복구전투는 자연과의 전쟁인 동시에 낡은 사상관점과의 투쟁이다.

사상에 의하여 모든것이 결정되듯이 오늘의 산림복구전투의 승패도 천만군민의 사상정신력에 의하여 좌우된다. 사람들의 사상과 신념이 흐려지고 애국적량심에 때가 앉으면 산림이 못쓰게 되는것은 물론 나라와 민족의 전도에 치명적인 후과를 미칠수 있다.

우리는 나라의 산림실태를 똑똑히 인식하고 사상관점과 태도부터 완전히 일신해야 한다. 불비쏟아지는 격전장에서 귀중한 물 한모금도 애어린 나무에 부어준 전화의 용사들과 허리띠를 조이면서도 자기 집 터밭에 알곡이 아니라 나무모를 심은 선군시대 공로자들의 고결한 정신세계가 이 땅 그 어디에나 차넘쳐야 한다. 조국의 대지에 나무 한그루라도 더 심고 누가 보건말건 산림을 적극 애호관리하는것으로 자신들의 애국의 신념과 열도를 검증받겠다는 비상한 사상적각오로 심장을 불태워야 한다.

국토환경보호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최대로 높여나가야 한다.

우리 당은 국토환경보호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굳게 믿고 귀중한 조국의 산천을 맡겨주었다. 국토환경보호부문에서는 자기 부문이 오늘의 산림복구전투의 참모부이라는것, 나라의 산림을 자신들이 전적으로 책임졌다는것을 한시도 잊지 말고 전투승리를 위한 작전과 지휘를 주도세밀하게, 완강하게 조직전개해나가야 한다. 장기성을 띠는 산림조성사업의 특성에 맞게 산림의 현 실태와 지대적특성, 현실적조건을 과학적으로 타산한데 기초하여 년차별계획과 전망계획을 명백히 세우고 어김없이 집행해나가야 한다.

나무모를 키우는것은 수림화, 원림화의 첫 공정이다. 국토환경보호성과 중앙양묘장을 비롯한 나무모생산기지들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싸우는 고지에 총포탄을 보장해주는 심정으로 수종이 좋은 나무종자들을 계속 확보하면서 생산면적을 늘여 널리 퍼치기 위한 사업에 힘을 집중하여야 한다. 각 도, 시, 군들에 현대적인 양묘장들을 꾸려놓고 자기 지방의 기후풍토에 맞는 좋은 수종의 나무모들을 대대적으로 생산보장해야 한다. 회전분무장치에 의한 나무모생산기지와 온실, 야외재배장, 영양단지생산기지를 비롯한 물질기술적토대를 그쯘히 갖추어놓고 올해에만도 근 600만그루의 나무모를 생산보장한 정평군산림경영소의 경험을 적극 본받아야 한다. 나무모생산의 과학화, 공업화, 집약화수준을 높이고 앞선 생산방법과 기술을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

산림조성사업은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쓸모있는 나무들로 목재림, 기름나무림, 산과실림, 밤나무림, 섬유 및 종이원료림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도, 시, 군들에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좋다고 평가하신 스트로브스스나무와 창성이깔나무를 비롯하여 빨리 자라고 경제적리용가치가 큰 나무들을 계단식으로 많이 심어 하루빨리 그 덕을 볼수 있게 하여야 한다. 자기 지방의 기후와 토양조건을 구체적으로 분석한데 기초하여 적지적수의 원칙에서 나무를 심고 생장에 유리한 조건을 지어주며 바늘잎나무와 넓은잎나무를 배합하여 심어야 한다.

나무심기를 과학기술적요구대로 진행하여야 한다. 아무리 수종이 좋은 나무라도 생물학적특성에 따르는 기후조건과 토양조건이 보장되지 않으면 사름률을 높일수 없고 제대로 자래울수도 없다. 산림부문에서는 나무심기를 진행하기에 앞서 일군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에게 심어야 할 나무의 생물학적특성을 비롯한 과학기술적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어 그들이 한그루의 나무라도 질적으로 심도록 하여야 한다. 나무모뜨기와 포장에서 기술규정의 요구를 정확히 지키며 식수대상지까지의 운반대책도 책임적으로 세워야 한다. 가로수들을 심을 때에는 도로의 성격과 주변환경에 어울리게 좋은 수종의 나무를 선택하여 심도록 하여야 한다.

산림보호이자 산림조성실적이다. 1만8,000여정보의 울창한 산림을 조성해놓은 벽성군산림경영소의 경험은 모든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에 담당림을 정해주고 나무심기와 보호관리사업을 책임적으로 하도록 조직사업과 총화평가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할 때 성과를 거둘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산림부문에서는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 담당림을 정해주고 책임적으로 보호관리하도록 하며 나무를 한대 베여도 승인을 받고 지정된 림지에서 베고 한대를 베면 열대를 심는 원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요구성을 높여야 한다. 땔나무림을 잘 조성하고 가꾸어 땔감을 제때에 보장해줌으로써 나무를 망탕 찍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병해충피해와 산불을 미리막기 위한 대책을 바로세워 품들여 조성해놓은 귀중한 산림이 피해를 입지 않게 하여야 한다.

오늘의 산림복구전투에서 군민협동작전의 위력을 높이 떨쳐야 한다.

인민군대에서는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제일기수로서의 영예를 빛내이며 산림복구전투에서도 시대적본보기를 창조해나가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선군장정의 길에서 인민군군인들과 함께 몸소 식수를 하신 깊은 뜻을 높이 받들고 병영주변과 주둔지역을 비롯한 조국의 산과 들에 수종이 좋은 나무들을 대대적으로 심고 정성껏 가꾸어야 한다. 전체 인민들도 인민군군인들과 마음과 마음을 합쳐 자기 사는 고향산천과 거리와 마을을 수림화, 원림화해나가야 한다.

당 및 근로단체조직들에서는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뜨거운 향토애를 지니고 나무심기와 보호관리사업에 한결같이 떨쳐나서도록 사상전을 공세적으로 벌려 사회주의애국림과 모범산림군칭호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야 한다. 사회주의애국림과 모범산림군칭호를 쟁취하기 위한 높은 목표밑에 나무심기를 정상적으로 근기있게 진행하며 전형단위를 창조하고 그 경험을 제때에 널리 일반화하여야 한다. 그 어디에서나 사회주의애국림, 모범산림군칭호쟁취운동의 세찬 열풍이 몰아치도록 사회적분위기를 고조시켜 수림화, 원림화하기 위한 투쟁으로 온 나라가 들끓게 하여야 한다. 청년동맹조직들과 학교들에서는 《청년림》, 《소년단림》조성사업을 힘있게 벌리며 그 과정을 통하여 청년들과 학생들의 가슴마다에 향토애, 조국애를 깊이 심어주어야 한다.

도, 시, 군 책임일군들이 앞장에 서야 한다. 책임일군들은 당정책의 운명이 자신들의 어깨우에 지워져있다는 자각밑에 산림조성과 보호관리사업을 직접 틀어쥐고 통이 크게, 완강하게 밀고나가야 한다. 송원군에서 해마다 수백정보의 나무심기실적을 올리고 오래전에 심은 나무들의 덕을 보고있는 기본비결은 군책임일군들이 산림조성과 보호관리사업의 앞장에 서서 대중의 거울이 된데 있다. 모든 책임일군들은 책상머리가 아니라 들끓는 현실에 나가 선전원, 선동원이 되여 대중의 정신력을 최대로 폭발시킴으로써 자기 고장이 산림조성, 산림복구전투로 세차게 끓어번지게 하여야 한다.

나무 한그루라도 더 많이 심고 애지중지 가꾸는 사람이 진짜애국자이다.

모두다 세월이 흐른 뒤 후대들이 위대한 **김정은**시대의 황금산의 새 력사가 창조되던 시기에 무엇을 해놓았는가고 물을 때 떳떳이 대답할수 있도록 오늘의 하루하루를 애국으로 살며 투쟁해나가자.

열렬한 조국애를 지니고 온 나라를 수림화, 원림화하기 위한 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절세위인들의 애국위업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임으로써 내 나라, 내 조국을 사회주의강성국가로, 인민의 락원으로 더욱 아름답게 꾸려나가자.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영상을 형상한 모자이크벽화를

함경남도의 여러 단위에 모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영상을 형상한 모자이크벽화를 옥련산밀영과 흥남비료련합기업소, 정평군 신상로동자구, 단천지구광업총국 광천광산, 금야군 인흥로동자구, 풍성리에 모시였다.

항일무장투쟁시기 위대한 수령님께서 일제의 삼엄한 국경경비진을 뚫고 국내에로 진출하시여 전민항쟁준비를 다그칠데 대하여 담화하시는 영상을 형상한 모자이크벽화가 옥련산밀영에 모셔졌다.

흥남비료련합기업소에는 로동계급속에 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영상을 형상한 모자이크벽화가 모셔졌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기업소를 수십차례 현지지도하시여 굴지의 화학비료생산기지로 전변시켜주시였으며 어버이장군님께서는 삼복의 무더위와 폭우, 강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이곳 기업소를 찾으시여 주체적인 비료생산체계를 완성하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다.

정평군 신상로동자구와 단천지구광업총국 광천광산에 모신 모자이크벽화들에는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 오르시여 부강번영할 주체조선의 창창한 미래를 축복해주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태양의 영상이 빛나고있다.

한평생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불면불휴의 로고를 다 바치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영상을 형상한 모자이크벽화 《위대한 내 나라, 내 조국이여 천만년 무궁번영하여라!》가 금야군 인흥로동자구에 모셔졌다.

금야군 풍성리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풍년든 농장벌을 찾으시여 환하게 웃으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영상을 형상한 모자이크벽화를 모시는 사업에 온갖 지성을 다 바치였다.

여러 단위에 모자이크벽화들을 정중히 모신것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주체의 태양으로 영원히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갈 우리 인민의 드팀없는 신념과 의지의 발현으로 된다.

모자이크벽화준공식이 해당 단위들에서 진행되였다.

【조선중앙통신】

하루 수십만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자강도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산림조성사업은 장기성을 띠는 사업인것만큼 전망성있게 계획적으로 조직진행하여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웅대한 국토건설구상을 높이 받들고 자강도의 일군들이 산림조성사업에 계속 큰 힘을 넣어 좋은 성과를 거두고있다.

도의 산림부문 일군들은 산림을 조성하고 보호하는 사업이 조국의 미래와 백년대계, 만년대계를 위한 숭고한 애국사업이라는 자각을 안고 빨리 자라면서도 경제적가치가 큰 좋은 수종의 나무모를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으면서 산림의 현 실태와 지대적특성에 맞게 적지적수의 원칙에서 산림조성을 계획적으로 해나가고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은 지난 11월 30일 하루동안에만도 산판들에 올라 많은 면적에 잣나무, 이깔나무를 비롯한 수십만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도당책임일군을 비롯한 시, 군당위원회 책임일군들이 산에 올라 나무를 심으면서 이신작칙으로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이 나무심기를 과학기술적요구에 맞게 진행하도록 이끌어주었다.

나무심기에서는 강계시, 송원군, 전천군, 성간군, 우시군이 모범을 보이였다.

강계시의 도급기관, 시급기관 일군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은 나무심기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구봉령과 그 주변산들에 수천그루의 나무를 정성껏 심었다.

강계시산림경영소의 일군들은 3~4년 키운 1만여그루의 수종이 좋은 나무모를 원만히 보장하였고 산림감독원들은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이 나무심는 간격과 구뎅이파기, 부식토주기, 나무모심기, 물주기 등 나무심기에서 과학기술적요구를 철저히 지키도록 요구성을 높이였다.

이날 도급기관들과 강계신발공장, 강계은하피복공장, 강계시상업관리소를 비롯한 강계시의 수백개의 단위에서 달려나온 일군들과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은 **김정일**애국주의로 심장을 불태우며 맡겨진 나무심기과제를 성과적으로 끝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 산림부문 일군들은 시, 군산림경영소양묘장들에서 다음해 산림조성에 요구되는 수종이 좋은 나무모를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실속있게 해나가고있다.

이와 함께 산림감독원들이 산림보호관리사업을 책임적으로 잘해나가도록 지도사업을 짜고들고있다.

특파기자 동세웅

조국산천을 푸른 숲 우거진 인민의 락원으로 더 잘 꾸려갈 애국의 마음안고 나무심기사업에 힘을 넣고있다. —중앙식물원 수목원에서— 본사기자 한광명 찍음

물확보사업을 힘있게 전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농사는 곧 물이고 물은 농사입니다.》

물을 최대한 확보하는 사업이 다음해농사에서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자각한 평안북도와 황해북도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이 사업에 힘을 넣어 많은 성과들을 거두고있다.

평안북도에서

평안북도에서 농사에 필요한 물확보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들어 성과를 거두고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농촌경리위원회에서는 도안의 저수지들의 수위가 낮아지고있는데 맞게 물원천을 찾아내는것과 함께 백마—철산물길과 압록강물길복구를 위한 경제조직사업을 전투적으로 해나가고있다.

도에서는 물확보를 위한 지휘부를 내오고 도급기관, 공장, 기업소들을 물확보사업에 적극 동원시키고있다.

백마—철산물길 룡천, 철산간선과 대하, 내중간선 등 물길복구에 떨쳐나선 도인민위원회, 신의주화학섬유공장을 비롯한 도급기관, 공장, 기업소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맡은 공사과제를 불이 번쩍 나게 해제끼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도식료일용공업관리국에서는 맡은 구간의 물길을 원상복구하고 장석공사를 질적으로 하여 한방울의 물도 새여나가지 않게 공사과제를 질적으로 수행하였다. 내중간선구간을 맡은 신의주마이싱공장 일군들과 로동자들도 물길복구전투를 며칠동안에 와닥닥 해제꼈다.

백마—철산물길 간선복구공사를 맡은 염주군과 룡천군에서도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면서 맡은 공사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전투에로 대중을 힘있게 조직동원하고있다. 태천, 박천, 철산군에서는 대중의 정신력을 발동하여 맡은 물길복구공사과제를 11월말까지 90%이상 해제끼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도농촌경리위원회에서는 물원천을 적극 찾아내기 위한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어 성과를 거두고있다.

도에서는 저수지들의 물을 뽑아쓰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우는것과 함께 정주시 오성협동농장에 저수지를 다음해 4월까지, 곽산군에서 황포저수지보수공사를 다음해 6월까지 완공하도록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고있다.

도에서는 하천과 개울에 흐르는 물을 모조리 농사에 리용하기 위한 투쟁도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도적으로 202개소에서 강막이, 근 600개의 굴포, 1000여개의 우물, 90여개의 졸짱, 지하저수지들을 원상복구하여 다음해 모판용물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보조수원을 마련하기 위한 대책도 예견성있게 세워나가고있다.

도농촌경리위원회에서는 해당 단위들에서 양수동력설비들에 대한 수리정비사업도 짜고들도록 하고있다.

특파기자 송창윤

황해북도에서

황해북도당위원회에서는 농업부문의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다음해농사를 위한 물확보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도록 조직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도에서는 다음해 3월말까지 2단계로 나누어 수십개의 저수지를 보강하고 수십개의 저류지, 저수지를 새로 건설하며 수백㎞의 물길을 건설 및 확장하고 우물, 졸짱, 물보충양수장들을 더 많이 건설할 높은 목표를 세우고 계획적으로 내밀고있다.

저수지건설이 빠른 속도로 진척되고있다.

방대한 면적을 차지하는 신계군 왕당2호저수지건설에 참가한 돌격대원들은 날마다 공사과제를 150%이상 넘쳐 수행하며 현재 흙언제쌓기에서 성과를 올리고있다.

토산군 일군들과 근로자들도 봉황동저수지를 하루빨리 완공하기 위해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전투를 벌려 련일 혁신을 이룩하고있다.

송림시, 황주군에서는 대동강물을 끌어들여 안전하게 농사를 짓기 위한 양수장건설이 힘있게 추진되고있다. 송림시에서는 인포리, 청운리 등에 대동강물을 끌어들이기 위한 공사가 시작된 며칠사이에만도 10여개 단위와 수십개 동, 인민반에서 많은 근로자들과 주민들이 동원되여 기초공사와 물길건설에서 많은 일을 해제꼈다. 황주군에서도 올해 가물피해를 많이 받은 순천협동농장 수백정보의 논밭을 대동강물로 적시기 위한 양수장건설과 물길건설을 통이 크게 벌려나가고있다.

곡산군을 비롯한 다른 군들에서 저류지, 굴포, 우물건설과 보막이를 비롯한 농업생산에 필요한 물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져 이미 많은 대상들이 완공되였다.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에서는 다음해에도 높은 알곡생산성과를 이룩하기 위한 구체적인 작전밑에 재령강물을 끌어올려 긴장한 물문제를 풀기 위한 사업과 함께 더 많은 물을 잡아두기 위한 사업도 적극 내밀어 성과를 거두고있다.

도에서는 전기가 긴장한 조건에 맞게 이미 있던 관개체계를 전기를 적게 쓰거나 자연흐름식으로 바꾸기 위한 사업이 진행되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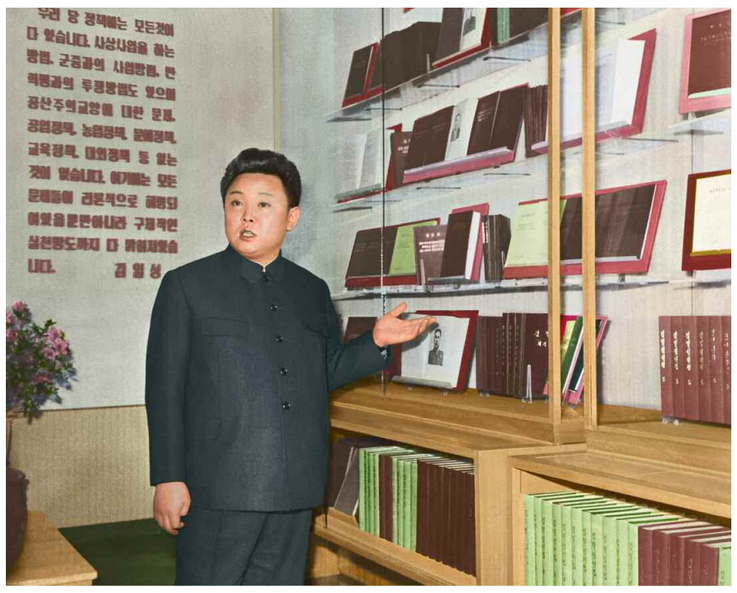
특파기자 김천일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총비서이시다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총비서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 오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77(1988)년 8월

당과 국가의 지도간부들과 담화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68(1979)년 10월



《**김일성**주의연구실》을 돌아보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63(1974)년 4월

조선로동당 제3차 사상일군대회에서 결론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63(1974)년 2월

당창건 35돐과 당 제6차대회경축 평양시군중시위를 보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69(1980)년 10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6기 제1차전원회의에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으로 추대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새로 개건확장된 대성산혁명렬사릉을 돌아보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74(1985)년 10월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사상리론활동으로 주체사상을 끊임없이 심화발전시키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74(1985)년 5월

당창건기념탑을 돌아보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84(1995)년 10월

조선로동당 제3차 대표자회 참가자들의 환호에 답례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99(2010)년 9월

위대한 생애, 불멸의 업적

우리 당을 일심단결된 백전백승의 전위대오로

온 나라 천만군민의 영생축원의 마음과 마음들이 뜨겁게 어린 이 땅우에 당창건기념탑이 찬연한 빛을 뿌린다.

오늘도 그 웅자를 우러르며 사람들은 정력적인 령도로 우리 당을 일심단결을 실현한 백전백승의 강철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신 위대한 장군님의 업적을 가슴깊이 새겨안는다.

력사에 전무후무한 일심단결을 가장 빛나게 실현한 조선로동당!

바로 이것이 위대한 장군님께서 비범한 령도로 강화발전시켜주신 우리 당의 참모습이다.

탁월한 령도로 조선로동당을 일심단결을 가장 빛나게 실현한 필승불패의 당, 백전백승의 강철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여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완성의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신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의 혁명업적은 승승장구하는 우리 당의 위력과 더불어 찬연한 빛을 뿌리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일심단결은 우리 혁명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며 조선의 상징입니다.》

전당과 온 사회의 일심단결을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가장 철저히 실현하신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시대와 력사앞에 이룩하신 업적중의 업적이다.

수십년전 정월 어느날의 사연이 돌이켜진다.

그날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의 혁명위업을 승리에로 전진시키실 확고한 의지를 담아 일심단결에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의 단결은 일심단결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당은 일심단결의 기치를 높이 들었다, 나는 영광스러운 주체혁명위업을 계승완성하기 위한 투쟁에 나설 때부터 일심단결을 혁명의 무기로 튼튼히 틀어쥐였다고 뜻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엄숙히 선언하시였다.

일심단결은 나의 혁명철학입니다!

실로 위대한 뜻이 빛발치는 력사의 선언이다.

장구한 력사를 돌이켜보아도, 세상을 둘러보아도 우리 장군님과 같이 일심단결을 혁명철학으로 틀어쥐시고 정력적인 령도로 가장 빛나게 실현한 위인을 우리는 알지 못한다.

정력적인 령도의 나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는 혁명을 위하여 단결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우리에게는 전당이 한결같이 움직이는 일심단결된 당이 필요하다고, 자신께서는 일심단결을 주장한다고 참으로 깊은 뜻이 담긴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일심단결, 이는 위대한 장군님의 정치리념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들도 일심단결을 출발점으로 하여 제시하시였고 정치도 단결의 정치를 펼치시였다.

그이께서 천만군민의 가슴마다에 심어주신 중요한 혁명정신도 바로 일심단결의 정신이다.

지금으로부터 반세기전의 6월 19일,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력사의 그날에도 위대한 장군님께서 일군들에게 그토록 강조하신것은 바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에 기초한 당의 통일단결을 튼튼히 다질데 대한 문제였다.

그날 사무실에서 밤을 밝히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른새벽 청사밖을 나서시였다.

당중앙위원회청사에서 휘날리는 붉은 당기를 바라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당을 영원히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실 뜻을 담아 참으로 고귀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당의 통일단결을 튼튼히 다져나가야 한다!

전당이 수령님을 중심으로 수령님의 혁명사상에 기초하여 굳게 단결하여야 한다!

력사의 그 의지를 안으시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장장 수십성상의 우리 당령도사를 일심단결로 빛내이시는 크나큰 업적을 이룩하시였다.

그처럼 준엄했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나날 일심단결의 기치를 억세게 추켜드시고 일심단결을 비상히 강화하신 우리 장군님의 업적이 얼마나 위대한것인가를 력사와 현실은 웅변으로 실증해주고있다.

자강땅을 찾으시여 헤치신 눈보라강행군길에서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당이 키워낸 훌륭한 인민, 어려울 때일수록 패배와 락심을 모르며 강한 의지와 신념에 넘쳐 살며 투쟁하는 인민들,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철의 의지를 안고 령도자를 끝없이 흠모하며 따르는 이런 인민들의 뜨거운 감정은 억만금의 돈으로도 살수 없는것이다. …

오로지 인민을 위하여, 당의 위업의 빛나는 실현을 위하여 결단코 사생결단의 강행군길을 헤치시는 그 나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그토록 절감하신것은 우리 당만을 하늘처럼 믿고 따르는 우리 인민의 일편단심의 모습이였다.

인민들이 당을 하늘처럼 믿고있는데 우리는 인민을 하늘처럼 믿어야 한다. 인민은 당을 믿고 당은 인민을 믿는 바로 여기에 철통같이 뭉친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이 담보되여있다!

력사의 그날과 더불어 선군혁명천만리길우에 절절히 울려퍼진 그이의 말씀이다.

한평생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그토록 열렬한 헌신의 화폭들을 떠올리시며 당과 조국, 인민을 이끄신 위대한 장군님,

그 길에서 우리 장군님께서는 이 나라 인민의 충직한 모습들을 보시며 필승의 신념을 더욱 굳히시였다.

우리 장군님 절절히 하신 말씀이 천만의 심금을 울린다.

전후 우리 혁명이 시련을 겪고있을 때 태성할머니가 수령님께 신심과 힘을 주었다면 오늘은 수많은 태성할머니가 나에게 신심과 힘을 주고있습니다. 지금 우리 인민들이 노래 《기다렸습니다》를 많이 부르고있는데 그 노래도 나에게 큰 힘을 주고있습니다. 그 노래에는 당을 끝없이 신뢰하고 당의 위업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는 우리 인민의 뜨거운 마음이 반영되여있습니다. 우리 인민은 참으로 좋은 인민입니다. 나는 우리 인민이 부르는 노래 《기다렸습니다》를 들을 때마다 인민의 아들로서 나라와 민족앞에 지닌 책임을 더욱 깊이 자각하며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일할 굳은 각오를 가지군 합니다. …

위대한 장군님의 마음속에는 이렇게 언제나 인민이 있었다.

천만군민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우리 장군님께서 계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령도아래 우리의 일심단결은 천백배로 다져지고 이 땅우에는 세상사람들을 경탄케 하는 기적과 변이 다계단으로 일어났다.

원쑤들의 모진 책동속에서도 더욱더 다져진 우리의 정치사상진지며 이 땅우에 타오른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불길, 조선의 국력을 누리에 떨치며 우주로 솟구쳐오른 우리의 인공지구위성…

이 모든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아래 이룩된 일심단결이 낳은 고귀한 결실들이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 이는 일심단결의 근본핵이며 그것은 절세위인들에 대한 절대적인 흠모심에 원천을 두고있다.

어느해 가을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미국의 호전계층이 콤퓨터모의전쟁에서 저들이 패한다는 답이 나오자 조선의 힘의 비결에 대하여 고도의 신경을 모으고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미제는 지금뿐아니라 앞으로도 우리 나라를 어쩌지 못할것이라고 확언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세상의 수많은 정치가들과 장군들에게는 간절히 바라면서도 이루지 못한 소원, 만민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세우려는 소원이 있는데 그 꿈을 실현하려고 어떤 사람은 총칼앞에서는 누구나 고분고분해진다고 하면서 총칼을 휘둘렀고 어떤 사람은 인정에 울지 않는 사람은 없다고 하면서 이른바 선정을 베풀었지만 누구도 그 소원을 이루지 못하였다고 하시며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교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는 일심단결을 좌우명으로 삼고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을 훌륭히 이룩하였다. 지금 우리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두고 세계의 정치인들은 조선의 일심단결은 원자탄으로도 깨뜨릴수 없다고 말하고있다. 이 위력한 일심단결의 무기야말로 **김정일**동지의 힘이며 주체조선의 힘이다. …

절세위인을 높이 모시여 력사에 전무후무한 일심단결을 가장 빛나게 실현한 조선로동당을 진보적인류가 끝없이 격찬하고있는것은 지극히 당연한것이다.

우리의 일심단결은 오늘 또 한분의 절세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시여 세기와 세기를 이어 억척같이 다져지며 강성국가건설에서 크나큰 위력을 떨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심단결은 장군님께서 물려주신 가장 귀중한 혁명유산이며 우리 혁명의 천하지대본이라고 하시면서 일심단결을 영원히 빛내일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희세의 위인이신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두리에 전당, 전군, 전민이 굳게 뭉친 일심단결이 있기에 우리 당의 위업은 영원히 필승불패이다.

글 본사기자 김인선
사진 본사기자 정순애

당의 강화발전을 위한 길에서

혁명의 생명선

어느해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당의 령도는 우리 혁명의 생명선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려는 원쑤들의 책동이 더욱 악랄해지고있는 오늘의 정세는 그 어느때보다도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강화할것을 요구하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당의 령도는 우리 혁명의 생명선!

혁명과 건설에서 당의 령도의 중요성을 다시금 밝혀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귀중한 가르치심은 일군들의 가슴을 세차게 울려주었다. 계속하시여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는 당조직들의 활동을 통하여 실현된다고, 당의 령도를 강화하여 사회주의를 옹호고수하고 강성국가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기 위하여서는 당조직들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하시였다.

혁명의 참모부인 당을 더욱 강화하고 그 령도적역할을 비상히 높여 이 땅우에 기어이 사회주의강성국가를 일떠세우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높으신 뜻을 일군들은 다시금 심장깊이 새기였다.

자식을 사랑하고 돌봐주듯이

주체83(1994)년 11월 1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사회주의는 과학이다》**를 발표하시여 어버이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사회주의위업을 끝까지 고수하고 완성해나갈것이라는것을 엄숙히 선언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로작에서 사회주의정치의 본질은 인덕정치이며 인덕정치를 실시하자면 사회주의집권당을 어머니당으로 건설하여야 한다는것을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을 어머니당으로 건설한다는것은 어머니가 자식을 극진히 사랑하고 따뜻이 돌봐주듯이 당을 인민대중의 운명을 책임지고 세심히 보살펴주는 진정한 향도자로, 보호자로 되게 한다는것을 의미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또한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을 인민을 끝없이 사랑하고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는 정신으로 교양할데 대한 문제, 일군들을 철저히 혁명화할데 대한 문제 등 사회주의집권당을 어머니당으로 건설하는데서 나서는 과업들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시였다.

변함없는 신념과 의지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선인민군공훈합창단(당시)의 공연을 보아주실 때였다.

조선인민군공훈합창단은 《동지애의 노래》, 《조선로동당 만세》,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 《높이 들자 붉은기》 등의 노래들을 무대에 올렸다.

그들의 공연성과를 치하해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어버이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아래 우리 당이 새형의 로동계급의 당으로 창건되였을뿐아니라 준엄한 투쟁의 불길속에서 단련되고 세련된 혁명적당으로, 인민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는 당으로 강화발전되였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우리는 혁명의 길이 아무리 멀고 험해도 수령님의 유훈을 지켜 변함없이 주체의 한길로만 가야 한다, 이것이 우리 당의 움직일수 없는 신념이고 의지이라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그 어떤 풍파가 닥쳐온다고 하여도 우리 당을 오직 위대한 수령님의 당, 주체형의 당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가시려는 그이의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의 선언이였다.

채히성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오늘도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 계신다.

친근한 어버이의 태양의 모습은 인민의 마음속에 하루이틀에 새겨진것이 아니다.

어버이장군님따라 혁명의 머나먼 길을 걸어오면서 우리 군대와 인민은 그이이시야말로 운명과 미래의 전부이시며 위대한 태양이심을 심장으로 절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은 우리 당원들과 인민들의 마음속에 영원할것입니다.》

40여년전 겨울 어느날이였다.

그날은 눈바람이 세차게 불어대는 몹시도 추운 날이였다.

한낮이 되였을무렵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을 부르시여 곧 한 단위에 나갈 준비를 하라고 이르시였다.

서둘러 집무실로 들어서는 일군들에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며날 차비를 빨리 하였다고 하시며 여러가지 조치들을 취하신 다음에야 우렁우렁한 음성으로 그러면 떠나보자고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을 모신 승용차는 눈바람을 헤가르며 쾌속으로 달렸다.

어느덧 승용차는 그 단위의 정문으로 들어섰다.

점심시간이여서 사람의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았다.

조용한 구내를 둘러보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청사쪽으로 차를 곧추 몰게 하시였다.

정문을 통과한 승용차가 청사를 향하여 얼마간 달렸을 때였다.

난데없이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랐다.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이 무리로 밀려나오더니 두손을 높이 쳐들며 만세를 부르는것이였다.

크나큰 환희로 파도마냥 설레이는 군중속에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해빛같이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계시였다.

참으로 크나큰 격정을 불러일으키는 혼연일체의 위대한 화폭이였다.

성벽을 이룬 군중속에서 인자하신 미소를 짓고계시는 위대한 장군님을 우러르며 일군들은 뜨거운것이 솟구쳐오름을 금치 못하였다.

우리 장군님께서 오시는줄을 누구도 몰랐다. 그러나 그이께서 오신것은 누구나 알았다.

영원한 모습

추운 겨울날씨에 인민들의 건강을 념려하시여 여러가지 대책을 세우도록 조치를 취하시였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저으기 놀라운 안색으로 일군들을 돌아다보시며 어떻게 된 일인가고 물으시였다.

누구도 모를 일이여서 그저 딱한 표정만 짓고있는 일군들을 보시다가 더는 어쩔수 없으신듯 장군님께서는 차에서 내리시였다.

열광의 환호에 답례하시며 날씨가 추운데 왜 나왔는가, 점심식사는 했는가, 건강은 어떠한가고 다정히 물으시는 위대한 장군님,

친근한 어버이의 음성은 한마디한마디 후더운 정과 열로 사람들의 온몸을 덥혀주었다.

사람들에게 크나큰 행복과 환희를 안겨주었다.

금수산지구에 넘쳤던 그날의 격정은 온 나라 인민의 순결한 흠모심이였고 그것은 그대로 신념으로 굳어졌다.

그 언제나 심장속에 위대한 장군님의 모습을 안고 사는 천만군민의 투철한 신념은 류례없는 고난과 시련속에서 더욱 순결해졌고 선군혁명의 길에서 억척으로 다져졌다.

한평생 인민들과 고락을 함께하시며 자애로운 어버이가 되여주신 우리 장군님,

위대한 그이의 령도를 따라 조국앞에 가로놓인 모진 시련과 고난속에서도 우리는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고 강성국가건설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세기와 세기를 넘어 쌓이고쌓인 인민의 아름다운 추억이 사상감정으로 전환되고 대를 이어 전해지는 민족의 사상정신적특질로 공고해지는것은 력사의 순리라고 할수 있다.

오늘도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우리 인민의 심장속에 태양의 모습으로 계신다.

또 한분의 절세의 위인, 희세의 선군령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온넋을 다해 충정으로 받들어 모시려는것이 오늘 우리 인민의 신념이고 의지이다.

본사기자 한영민

선군조선의 3년이 새긴 력사의 진리

어느덧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우리 조국땅에 흐른 그 3년간의 모든 날과 달들은 결코 짧지 않았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일심의 성새를 이룬 천만군민이 그이와 팔을 끼고 어깨를 겯고 세인을 경탄시키는 승리만을 장엄히 아로새겨온 조선의 3년!

그 력사적인 나날을 통해 세계는 과연 무엇을 보았으며 력사는 자기의 페지에 무엇을 뚜렷이 아로새겼는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을 변함없이 우리 당의 총비서로 높이 모셔야 합니다.》

지난 3년간의 투쟁을 통하여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은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영생하신다는 철리를 피끓는 심장마다에 암반마냥 굳게 새겼다.

도도히 굽이치는 대하에도 그 시원이 있듯이 이 나라 천만군민의 심장마다에 간직된 그렇듯 고결하고도 열렬한 전인민적감정에도 그 사상적원천이 있다.

바로 그것은 조선로동당을 이 나라 천만아들딸들의 운명도 미래도 다 맡아안아 따뜻이 보살펴주는 어머니당으로 강화발전시켜주신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고마움이다.

언제인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어버이장군님은 조선로동당을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 향도자로 강화발전시키고 우리 혁명을 백승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걸출한 령도자이시며 희세의 정치원로이시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돌이켜보면 우리 당을 강화발전시키시기 위해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무한대한 정력을 바치신 우리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무슨 말로 다 칭송할수 있겠는가.

지칠줄 모르는 사색과 탐구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의 세계사적지위를 밝히시고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우리 당의 최고강령으로 선포하신 격동의 1970년대며 주체사상탑, 개선문, 서해갑문과 같은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들을 수풀처럼 일떠세우시며 일심단결의 장엄한 화폭을 펼쳐오신 1980년대…

인민을 위해서라면 저 하늘의 별이라도 따와야 한다는 숭고한 인민관을 지니시고 우리 당을 인민의 모든 꿈을 찬란히 꽃피워주는 진정한 어머니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기 위해 우리 장군님께서 바치신 크나큰 심혈과 로고에 대하여 다 이야기하자면 끝이 없다.

진정 우리 당의 강화발전을 위한 길에 쌓으신 그이의 업적이 그토록 위대하기에 이 나라 천만군민의 심장속에 위대한 장군님은 태양으로 영생하고 계시는것이다.

두해전 어느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우리가 민족의 어버이를 잃고 당과 국가의 최고직책이 공석인 조건에서도 나라의 정치적안정을 확고히 보장하고 모든 사업을 사소한 편향도 없이 진행하고있는것은 우리 당이 강하고 그 두리에 군대와 인민이 일심단결되여있기때문이라고, 이것은 장군님께서 우리 당과 혁명을 이끄시면서 쌓아올리신 업적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으며 그 위대성과 영원한 생명력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장군님을 하늘처럼 믿고 살아온 우리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의 심장에 장군님은 민족의 어버이로, 우리 당의 총비서로 깊이 새겨져있으며 세상사람들도 그것을 공인하고있습니다. …

우리 당의 총비서!

우리 장군님에 대한 끝없는 감사의 정으로 분출하는 숭고한 사상감정을 피끓는 심장마다에 굳게 새겨안은 우리 군대와 인민이기에 황홀한 새 거리를 펼치면 또 뵈올가 최첨단 새 공장을 세우면 또 뵈올가라는 심장의 노래를 부르며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에 자기들의 고결한 충정을 깡그리 다 바쳐올수 있은것이다.

정녕 우리 조국에 장엄히 흐른 3년이야말로 위대한 장군님을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조선로동당의 불패의 위력을 만방에 남김없이 떨쳐온 력사적인 승리의 날과 달들이다.

그렇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우리 군대와 인민의 마음속에 영생하신다!

바로 이것이 선군조선의 잊지 못할 3년이 력사에 새긴 진리이다.

본사기자 정순학

바람도 비도 막아준 어머니

한 시인은 자기의 창작수기에 이런 글을 남겼다.

《당은 어머니! 어머니당은 **김정일**동지!

나는 인민의 말을 그대로 적었을뿐이다.》

어머니,

어머니란 이 말보다 우리 당에 더 어울리는 뜨거운 말은 없다.

피도 숨결도 다 나누어주고 바람도 비도 죽음까지도 다 막아나서주는 우리들의 어머니,

이것은 위대한 당을 우러러 터친 한 시인의 목소리만이 아닌 온 나라 천만군민의 심장의 고백이다.

어제도 오늘도 어머니라 불리우며 우리 당이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을수 있는것은 조선로동당을 어머니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인민들은 우리 당에 자기의 모든것을 의탁하고있으며 우리 당을 어머니당이라고 부르고있습니다.》

각이한 인생길을 걸어온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한점의 그늘까지도 가셔주신 우리 장군님의 믿음과 사랑의 일화들가운데는 오늘도 우리 군대와 인민이 잊지 못하는 10여년전의 이야기도 있다.

주체89(2000)년 3월 어느날이였다.

재능있는 한 예술인에 대하여 추억깊은 말씀을 하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약육강식의 자본주의사회에서 살던 그를 잘 돌봐주며 차별없이 대해주어야 한다는데 대하여 따뜻이 이르시였다.

어머니당의 사랑에 대하여 하시는 그이의 말씀은 계속되였다.

모든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는 우리 당의 정책에는 그전에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언제인가도 예술영화 《군당책임비서》에서 군당책임비서가 화력발전소를 담당한 군당지도원에게 어떤 어린애 어머니가 속이 타서 자기 아이를 막 때리는데 그 아이는 달아나는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머니치마폭으로 더욱 기여들더라고 하는 대사가 아주 좋다고, 사실 어린아이들이 어머니한테 매를 맞으면서도 달아나지 않고 어머니품으로 기여드는것은 어머니가 자기를 아끼고 사랑해준다는것을 알기때문이라고, 우리에게 있어서 어머니품은 바로 당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신 우리 장군님,

어느 한 단위에서 나타난 군중과의 사업에서의 편향을 두고 어머니는 자식을 차별하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한 당원의 정치생활에 대해 친히 보증하시고 보다 중요하고 책임적인 일을 맡기도록 하신 이야기를 비롯하여 우리 당력사에 새겨진 위대한 믿음과 사랑의 화폭들은 그 얼마인지 모른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차별없이 보살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친어버이사랑에 의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가슴속에 맺혀있던 응어리들을 털어버리고 우리 혁명의 핵심으로 억세게 자라날수 있었다.

그렇다.

우리에게는 이 땅에 생을 둔 사람들모두가 어머니라 부르며 따르는 위대한 당이 있다.

하나의 전사 뒤떨어져도 천리길, 만리길을 다시 달려가 붉은기에 휩싸안아 대오에 세워준 혁명의 어머니, 하늘가에 흩어지고 땅에 묻혔다가도 다시 돌아와 안기는 영원한 삶의 품, 어버이장군님의 품을 인민은 사무치는 그리움속에 노래하고있는것이다.

설사 어머니를 잃은 자식은 있을수 있어도 운명도 미래도 다 맡아주는 위대한 어머니당의 품에 안기지 못한 자식은 없다고 심장의 목소리를 터치고있는것이다.

우리 삶을 빛내준 어머니, 우리 운명 지키는 어머니, 우리 미래 다 맡은 어머니…

어버이장군님처럼 온 나라 인민을 뜨거운 사랑과 정으로 품어안으시고 마음속그늘도 가슴속상처도, 말 못할 소원까지도 헤아려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시여 우리 당은 오늘도 어머니라 불리우고있다.

…

그 품에 자란 천만아들딸 한마음 우러르며
생을 주시고 빛내여주신 어머니를 따릅니다
사심없이 변함이 없이 그대만을 사랑할 마음
어머니 어머니 위대한 어머니 영원히 안기렵니다
…

어제도 오늘도 어머니라 불리우는 위대한 그 품에 인민은 길이 살리라.

운명도 미래도 다 맡긴 어머니당을 인민은 영원히 받들리라.

본사기자 리금분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군민대단결의 위력 떨치며 폭풍쳐 내달린다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에 떨쳐나선 군인건설자들과 돌격대원들

애국의 넋과 열정으로 가꾸어온 사회주의청춘대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김정일애국주의를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고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투쟁에 떨쳐나서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의 웅대한 구상에 따라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이 착공된 때로부터 어느덧 2년이 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지난해 잡초와 잡관목만 무성했던 황무지를 개간하여 우리 식 대규모축산기지건설의 돌파구를 열어놓은 군인건설자들과 돌격대원들이 올해의 먹이풀판조성에서 큰 전진을 이룩하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애국의 한생이 어려있는 드넓은 세포전역을 사회주의청춘대지, 대초원으로 전변시킬 결사의 각오를 안고 떨쳐나선 이들은 뜻깊은 올해에 6 100여정보의 인공풀판을 새로 조성하고 2만 5천여t의 먹이풀과 먹이작물을 수확하였으며 5만여t의 말린풀과 풀절임을 생산하여 수만마리의 소, 양, 염소를 기를수 있는 겨울철먹이를 해결하였다.

대규모축산기지건설에서 지력을 높이기 위한 투쟁은 새로 조성되는 먹이풀판의 생산성을 과학적으로 담보하는 매우 중요하고도 책임적인 사업이였다. 현장지휘부와 각 단위 지휘성원들은 지난해 풀판조성과정을 통하여 이 사업의 중요성을 깊이 명심하고 올해 첫 전투의 주타격방향을 여기에 정하였다. 즉시 그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조직사업들이 진행되고 빈틈없는 작전이 펼쳐졌다. 들끓는 전투장마다에서 사상전을 공세적으로 벌리기 위한 만단의 준비가 갖추어졌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받아안은 즉시 새해전투의 시작을 알리는 돌격나팔소리가 세포전역에 울려퍼졌다.

조선인민군 주동철소속부대 지휘관들과 군인건설자들이 백두산혁명강군의 위용을 떨치며 토양개량제생산과 운반에서 불굴의 정신력을 남김없이 발휘해나갔다. 이들은 륜전기재들의 가동률을 높이는 한편 3 500여대의 각종 운반수단들을 리용하여 매일 500t이상의 토양개량제를 생산하는족족 포전에 실어냈다.

당이 바란다면 돌우에도 꽃을 피우려는 충정의 일념안고 산악같이 떨쳐나선 인민보안부려단 군인건설자들이 흐르는 분과 초를 위훈으로 수놓으며 토양개량제생산에서 련일 혁신을 일으켜나갔다. 이들은 눈덮인 험한 령길을 넘어 수백리 떨어진 주변의 군과 시에까지 가서 진거름을 확보하였다. 그것을 발구로 운반하여 4만 5천여t의 질좋은 토양개량제를 생산하였다.

철도성려단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이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며 봄씨붙임전까지 2만여t의 질좋은 토양개량제생산과 운반을 끝냈다.

인민봉사총국과 보건성, 룡악산지도국, 대외경제성, 륙해운성, 경공업성, 조선대양총회사, 수매량정성, 전자공업성, 원유공업성돌격대를 비롯한 세포군사단안의 많은 단위들에서 올해의 토양개량제전투를 통이 크게 벌려나갔다. 사단지휘부일군들부터가 생눈길을 헤쳐나가는 심정으로 대오의 기관차가 될 각오를 안고 분발해나섰다. 이들은 온 산판을 발이 닳도록 오르내리면서 끝끝내 수십가지의 영양원소들이 들어있는 흙깔이재료매장지를 찾아내였다. 그리고 한달동안에 4만여t을 실어내기 위한 집중수송전투를 조직하여 흙깔이를 질적으로 해제낄수 있게 하였다.

평강군과 이천군사단 일군들과 돌격대원들도 계획된 량의 토양개량제를 포전에 낸 다음 적기에 먹이풀씨를 뿌렸다.

이 땅의 모든것을 살점처럼 귀중히 여기고 열과 정을 쏟아부어온 군인건설자들과 돌격대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올해 봄씨붙임전까지 6만 3천여t의 소석회와 16만여t의 흙보산비료, 29만여t의 거름이 생산됨으로써 세포등판에 풍요한 먹이풀작황을 펼쳐놓을수 있는 담보가 마련되였다.

올해 봄철에 세포등판에서는 례년에 없는 심한 가물이 100여일간이나 지속되였다.

김정일애국주의를 심장깊이 간직한 군인건설자들과 돌격대원들이 혹심한 가물과의 투쟁을 과감히 벌리면서 먹이풀씨뿌리기와 풀판관리에 온넋과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나갔다. 인민보안부려단 군인건설자들이 뜻깊은 올해의 총진군에서 결사관철의 투사, 위훈의 창조자가 될 불타는 맹세를 다지며 드넓은 대지에 풀씨와 함께 깨끗한 량심을 묻었다. 이들은 뜨겁게 내려쪼이는 뙤약볕속에서도 7회이상의 김매기를 중단없이 진행해나갔다. 또한 400m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한 저류지까지 하루평균 60회이상 오가며 고랑마다 생명수가 흐르게 함으로써 먹이풀의 초기생육을 안전하게 보장하였다. 이들의 이런 헌신적인 투쟁이 있어 센 바람이 자주 불고 척박하다던 성산지구에서는 올해 먹이풀을 3차 수확하였으며 정보당 최고 40여t, 도합 5 100여t을 거두어들이는 놀라운 성과가 이룩되였다.

철도성려단, 자강도려단과 보건성, 인민봉사총국, 룡악산지도국, 대외경제성돌격대들을 비롯한 많은 성, 중앙기관돌격대들에서 포전담당책임제를 실정에 맞게 실시하고 평균 8회이상 김매기와 여러차례 잎덧비료주기, 가물피해를 막기 위한 사업을 책임적으로 진행하여 정보당 수십t씩의 먹이풀과 먹이작물을 수확하였다. 특히 대성지도국돌격대에서는 오리새를 정보당 최고 70t, 인민봉사총국돌격대에서는 정보당 40여t의 자주꽃자리풀을 적기에 수확하는 혁신이 창조되였으며 평강군사단 각도, 시려단들에서도 많은 량의 먹이풀을 거두어들였다.

그 어떤 자연재해속에서도 귀중한 한치한치의 땅을 보호하기 위해 군인건설자들과 돌격대원들은 올해전투기간 방풍림과 각종 보호림조성을 위해 2천여만그루의 나무를 인공풀판과 자연풀판구역에 정성껏 심고 가꾸어왔다. 뿐만아니라 300여km의 배수로치기를 하여 품들여 조성한 먹이풀판을 큰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수 있게 하였다.

김정일애국주의로 심장을 불태울 때 이 하늘아래 불모의 땅, 헛되이 흐르는 강, 쓸모없는 산이 하나도 없다는것을 다시금 가슴속깊이 새겨안은 군인건설자들과 돌격대원들은 지나온 날과 달들을 승리자의 긍지안고 돌이켜보며 올해전투를 빛나게 결속하기 위한 총돌격전을 힘차게 벌려나가고있다.

올해 세포등판에서는 수백건의 기술혁신안이 여러 분야에 도입되여 현실에서 큰 은을 내였다. 이 성과속에는 2월17일과학자, 기술자돌격대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깃들어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현실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기동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과학자, 기술자돌격대활동을 강화발전시켜야 합니다.》

과학기술에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을 앞당기는 지름길이 있다.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이런 결의를 다지며 가치있는 기술혁신안들을 현실에 적극 도입하기 위한 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일군들은 모든 돌격대원들이 현지로 나가 풀판조성에서 절박하게 제기되는 문제들을 종자로 틀어쥐고 기술혁신안도입을 끝장을 볼 때까지 완강하게 내밀도록 적극 떠밀어주었다. 특히 이들은 먹이풀판조성에 불리한 지역들을 구체적으로 장악하고 필요한 대책을 제때에 세워주기 위한 과학기술적지도에 힘을 넣도록 조직사업을 하였다. 그리고 중앙현장지휘부와의 련계밑에 해당 단위들에 나가 기술혁신안도입에서 제기되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돌격대원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사업도 실속있게 짜고들었다.

돌격대원들은 지칠줄 모르는 헌신의 낮과 밤을 이어나갔다. 이들은 세포군 성산, 현리지구를 비롯한 많은 지역들에 나가 그곳에서 일하고있는 돌격대원들에게 여러가지 유기광물질비료를 자체로 생산리용할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었다. 그리고 가치있는 기술혁신안들을 해당 단위들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도입하여 지력을 높일수 있게 하였다.

그뿐이 아니다. 세포군 백산지구에 나간 돌격대원들은 토양속에 여러가지 풀림성영양원소들의 함량을 높이기 위한 기술적지도를 짜고들어 진행함으로써 먹이풀생산량을 지난해보다 1.5배이상 늘일수 있게 하였다.

올해전투기간 돌격대에서는 해당 단위들에서 생산한 흙보산비료의 후민산염함량분석과 거름의 질을 평가할수 있는 방법을 도입하여 한몫 단단히 하였다. 또한 확보된 먹이풀씨들의 질을 정확히 검사해주었으며 병충해를 미리막을수 있는 앞선 종자처리방법도 도입하였다. 그리고 먹이풀씨뿌리기의 질보장과 포전에 뿌린 씨앗의 싹트는률을 높일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여 많은 단위들에 도입하였으며 여러가지 재배방법에 의한 풀판조성방법과 가물이 심한 조건에서의 씨붙임방법들도 완성하여 현실에서 은을 내게 하였다.

이들의 성과는 여기에만 그치지 않았다.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싹트는 기간을 앞당기고 먹이풀모들을 튼튼하게 자래울수 있는 10여가지의 각종 식물성장촉진제들을 생산리용하도록 함으로써 1 200여정보의 포전에서 정보당 풀생산량을 종전보다 1.2배이상 늘일수 있게 하였다.

지리정보 및 류역모형화체계에 의한 먹이풀판의 배수체계문제해결, 종전보다 살초제를 적게 리용하면서 김잡이효과를 10%이상 높일수 있는 활성제의 개발과 도입, 새로 조성할 풀판의 지리적특성과 토양상태 및 기상기후조건들에 따르는 품종배치를 바로할수 있는 풀판전자지도작성 등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여 군인건설자들과 돌격대원들이 올해의 먹이풀생산을 과학기술적으로 해나갈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고 떠밀어주었다.

과학기술성과로 열어놓은 지름길

열렬한 조국애로 안아온 결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애국의 마음은 조국과 인민을 위한 실천활동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2천여만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에 동원된 군인건설자들과 돌격대원들이 불타는 애국의 마음을 안고 2천여만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중앙현장지휘부에서는 나무심기를 전망성있게 계획적으로 조직진행해나갔다.

자강도려단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이 애국적열정을 남김없이 발휘하며 17만여그루의 나무를 정성껏 심고 관리하였다.

림업성돌격대에서는 세포등판의 불리한 기상기후조건에서도 잘 자라는 수종이 좋은 1만여그루의 나무모를 자체로 확보하고 적기에 심었다. 최고검찰소, 조선대양총회사, 외교단사업총국돌격대에서는 평양단풍나무와 아카시아나무모들을 자체로 생산보장하였으며 상업성과 대흥지도국, 식료일용공업성돌격대를 비롯한 많은 단위들에서 수만그루의 나무모들을 기술적요구대로 심었다. 평강군과 이천군사단들에서도 계획된 나무심기과제를 책임적으로 수행하였다.

300여km의 배수로치기 진행

품들여 조성해놓은 먹이풀판을 무더기비와 큰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사업이 경쟁적으로 진행되였다. 결과 300여km의 배수로치기가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

조선인민군 주동철소속부대의 지휘관들과 군인건설자들이 완강한 돌격전을 벌리며 계획된 배수로치기과제를 질적으로 해제꼈다. 인민보안부려단에서는 수십km의 배수로치기 및 물도랑정리와 여러 개소의 구간에 대한 돌쌓기, 잔디입히기를 하여 먹이풀판을 큰물로부터 보호할수 있게 하였다. 륙해운성돌격대에서는 배수로치기를 과학적리치에 맞게 함으로써 경사지포전들에서의 토지류실을 막을수 있는 담보를 마련해놓았다. 자강도려단을 비롯한 각 도, 시려단들에서도 력량을 집중하여 맡겨진 배수로치기과제를 제기일에 끝냈다. 그리하여 300여km의 배수로치기가 진행되여 애써 가꾼 먹이풀들이 자그마한 피해도 입지 않고 잘 자랄수 있게 하였다.

수천정보의 칡산을 조성

세포전역에 수천정보의 칡산이 조성되였다.

이천군사단에서 칡산조성을 적기에 끝낼 목표를 세우고 완강하게 실천해나갔다. 사단지휘부일군들이 지난해에 확보해놓은 칡모와 칡씨앗의 보관정형 등을 알아보고 칡산조성단위들에 대한 기술적지도를 실속있게 해나갔다.

평양원예지도국돌격대가 70여정보의 칡산조성과제를 남먼저 수행한데 이어 인민대학습당과 조선중앙방송위원회, 외국문출판사, 국가과학원돌격대를 비롯한 많은 단위들에서 계획된 면적의 칡산조성을 적기에 질적으로 끝냈다.

평강군사단에서는 자체의 힘으로 수십만그루의 칡모를 생산한 황해남도려단의 경험을 적극 받아들여 칡산조성사업이 성과적으로 끝날수 있게 하였다. 세포군사단의 많은 단위들에서도 칡모보장사업을 예견성있게 내밀어 성과를 거두었다. 그리하여 산이 많은 우리 나라의 조건에서 칡산을 조성하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축산업을 발전시킬데 대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을 관철할수 있는 전망이 마련되였다.

◎ 늘어나는 새 마을과 집짐승우리들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인민들은 날로 변모되는 부강하고 문명한 조국의 모습을 보면서 크나큰 긍지와 혁명적자부심을 느끼게 되며 애국의 마음을 더 깊이 간직하게 됩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애국의 한생이 어려있는 세포전역을 하루빨리 인민의 리상향으로 전변시키기 위해 군인건설자들과 돌격대원들은 건축물공사에서도 련일 혁신을 창조해나갔다. 이들의 불타는 애국적열정에 떠받들려 세포등판에 우후죽순처럼 일떠서는 수많은 살림집들과 집짐승우리들이 완공을 눈앞에 두고있다.

옛 모습을 밀어내며 한폭의 그림처럼 일떠서는 새 마을들, 얼마전에 완공된 여러동의 집짐승우리들에는 소, 양들이 보금자리를 폈다. 세포등판의 휘황한 래일을 예고하듯 우리 식의 대규모축산기지가 자기의 면모를 드러내고있다.

당의 원대한 구상을 빛나게 실현하는 길에 자기의 피와 땀을 아낌없이 바쳐온 군인건설자들과 돌격대원들의 줄기찬 투쟁에 의하여 새로 일떠서는 살림집들은 먹는물보장으로부터 시작하여 근로자들의 모든 생활상편의를 원만히 보장하면서도 주변환경과 잘 어울리게 건설되고있다. 이 살림집들에 메탄가스화가 실현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집짐승우리들에서 나오는 많은 량의 배설물로 땔감문제를 풀고 지력을 높이는데 필요한 질좋은 유기질비료를 년중 중단없이 생산할수 있다. 축산과 먹이풀생산의 고리형순환생산체계를 확립하여 우리 당정책의 생활력을 현실적으로 뚜렷이 증명할수 있으니 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

집짐승우리들이 사양관리에 적합한 지역들에 경쟁적으로 일떠서고있다. 세포군 읍, 성산리와 같은 구릉지대들에는 소와 양들을, 세포군 상술리와 약수리처럼 산골짜기가 많은 지역들에는 염소를 기를수 있는 집짐승우리들이 건설되고있다. 이 축산기지들에는 휴식칸, 새끼낳이칸, 야외놀이장, 먹이가공실, 건조장, 풀절임탕크들이 있다. 또한 자연흐름식에 의한 수도화가 되여있고 우리옆에 우물과 양수장도 있어 집짐승사양관리에 필요한 물을 충분히 보장할수 있다.

현장지휘부에서는 근로자들의 생활상편의와 축산물생산조건을 원만히 갖춘 살림집과 집짐승우리들을 건설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 수행을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특히 이들은 해당 지역에 조성된 풀판면적에 따르는 관리공들의 살림집수와 어떤 집짐승들을 어디에서 몇마리규모로 기르겠는가를 타산하고 건설위치를 확정하였다. 그리고 필요한 건설자재를 보장해주기 위한 대책도 예견성있게 세웠다. 결과 세포전역에서는 살림집과 풀먹는집짐승들의 우리건설이 동시에 진행되게 되였다.

성, 중앙기관돌격대들에서 맡겨진 건축물공사를 질적으로 완공하기 위한 전투가 벌어졌다.

외교단사업총국과 경공업성돌격대에서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며 살림집과 소우리건설을 짧은 기간에 완공하고 수십마리씩의 소들이 선참으로 보금자리를 펼수 있게 하였다. 농업성돌격대에서는 공사를 짧은 기간에 질적으로 끝낼수 있는 혁신적인 방도들을 찾아쥐고 살림집과 양우리건설을 제기일에 결속하였다. 대성지도국돌격대를 비롯한 많은 단위들에서도 맡겨진 살림집과 집짐승우리들을 완공하여 축산물생산을 시작할수 있는 담보를 마련해놓았다.

승리자의 긍지높이 지나온 한해를 감회깊이 돌이켜보는 군인건설자들과 돌격대원들은 집짐승떼가 구름처럼 흐르고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웃음소리가 높이 울려퍼질 세포등판의 휘황한 래일을 그려보며 올해전투를 빛나게 결속하기 위한 총돌격전을 벌려나가고있다.

글 및 사진 현지보도반

은정어린 생일상을 받아안았다

어머니조국의 품속에서 값높은 삶과 행복을 누려가는 불굴의 통일애국투사인 비전향장기수 리공순동지가 여든번째의 생일을 맞이하였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3일 그에게 은정어린 생일상을 보내주시였다.

생일상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마음의 기둥으로 굳게 믿고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한생을 굴함없이 싸운 리공순동지에 대한 크나큰 믿음과 사랑이 어려있다.

전후 조국통일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의 길에 나섰다가 적들에게 체포된 그는 수십년간 옥중에서 전향을 강요하는 원쑤들의 온갖 고문과 회유공갈을 박차고 혁명적신념과 의리를 지켜 용감하게 싸웠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그를 당의 품, 조국의 품으로 데려오도록 하시고 공화국영웅으로, 조국통일상수상자로 내세워주시였으며 주실수 있는 사랑을 다 베풀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 탄생 100돐경축행사와 조국해방전쟁승리 60돐 경축행사를 비롯한 주요계기들에 그를 대표로 불러주시며 끝없는 영광을 안겨주시였으며 생활에서 자그마한 불편이 있을세라 따뜻이 보살펴주고 계신다.

리공순동지와 가족, 친척들, 비전향장기수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사랑에 격정을 금치 못해하며 당의 선군혁명령도따라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을 빛내이는데 참답게 이바지할 열의에 넘쳐있었다.

* *

인간의 참된 삶이 꽃피는 고마운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에서 장수자들이 계속 늘어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생일상을 함흥시 성천강구역 은정동에서 살고있는 백살장수자 리향국할머니가 받아안았다.

할머니는 인생의 크나큰 영광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에 넘쳐 솟구치는 눈물을 금치 못하였다.

일제통치의 암담한 시기에 농사군의 딸로 태여나 갖은 천대와 멸시를 받으며 생계를 이어온 그는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일제에게 빼앗겼던 조국을 찾아주신 다음에야 비로소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게 되였다.

전후 수십년간 급양봉사부문에서 인민의 봉사자로 성실히 일해온 그는 년로보장을 받은 후에도 일손을 놓지 않고 좋은 일을 많이 하였다.

식생활에서 편식을 모르는 그는 생활을 언제나 락천적으로 하고있다.

장수자할머니의 가족, 친척들은 절세위인들의 은덕을 가슴에 새기고 당의 선군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더욱 빛내이기 위한 보람찬 투쟁에 참답게 이바지할 열의에 넘쳐있었다.

오산덕상체육경기대회 개막

오산덕상체육경기대회가 개막되였다.

경기대회기간 평양과 삼지연등지에서 빙상호케이, 빙상휘거, 속도빙상, 짧은주로속도빙상, 스키경기들이 벌어지게 된다.

개막식이 3일 빙상관에서 있었다.

관계부문 일군들, 체육인들, 근로자들이 개막식에 참가하였다.

김영훈체육상이 개막사를 하였다.

그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의 탄생일을 맞으며 진행되는 경기대회가 겨울철체육종목들을 하루빨리 세계적수준에 끌어올리려는 체육인들의 신념과 의지를 보여줄 의의깊은 계기로 된다고 말하였다.

모든 선수들이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체육강국건설구상을 높이 받들고 경기에서 평시에 련마해온 육체기술적능력을 남김없이 발휘할데 대하여 그는 강조하였다.

이어 경기대회상징기발이 게양되였다.

개막식이 끝난 다음 대성산체육단과 평양철도국체육단사이의 남자빙상호케이경기가 있었다.

【조선중앙통신】

유기식품과 그 생산

지금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위생학적으로 완전히 안전한 유기식품을 적극 개발리용하는 방향으로 나가고있다.

유기식품이란 원료의 생산 및 수확으로부터 가공, 저장, 운반에 이르는 전과정에 오염되지 않고 영양학적기능과 질이 확고히 담보된 식료품을 말한다.

지역별, 나라별로 서로 다른 이름으로 부르기도 한다. 대체로 자연식품, 생태식품, 유기식품, 록색식품이라고 한다.

이름은 서로 다르게 부르지만 그 공통성은 무공해, 무오염, 안전, 고질식품이라는데 있다.

유기식품이 되자면 다음과 같은 몇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원료의 생산지는 그 어떤 오염도 없어야 하며 기본원료의 생산과정에 화학합성한 비료나 농약, 성장촉진제를 절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원료의 순도는 95%이상 되여야 하며 식품가공과정에 합성방부제, 합성첨가제, 인공색소 등을 절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보관 및 수송과정에 유해물질의 오염이 없어야 한다.

특별한 포장 및 표식규정에 부합되여야 한다. 유기식품의 규정된 표식, 문자, 인증번호 등이 밝혀져야 하고 풀색바탕에 유기식품 또는 록색식품이라는 흰색글자로 표기되여야 한다.

유기식품산업을 발전시키자면 유기식품생산을 위한 원료기지를 옳게 선정하여야 한다. 자연적으로 절대적인 무공해상태가 보장되는 지역을 선정해야 한다.

유기식품원료의 재배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

종자는 철저히 유전자재조합하지 않고 유기농법으로 생산된 우량품종을 선정해야 한다.

질좋은 유기질비료, 생물비료, 생물농약을 개발리용하여야 한다.

유기식품생산공정의 무균화, 무인화를 실현하여야 하며 초림계추출, 진공탈수, 진공랭동건조, 랭동미크로파건조 등 최신가공기술을 적용하여야 한다.

한덕수평양경공업대학 교수 박사 지경룡

원쑤에 대한 환상은 곧 죽음! 적들과는 오직 총대로 결산해야 한다

사랑은 내 조국에, 증오는 원쑤에게

반제반미대결전, 계급투쟁의 길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의 마음속에 간직된 남다른 기질이 있다.

조국에 대한 사랑도 불같이, 원쑤에 대한 증오도 치솟는 불길처럼!

하나의 심장속에 두가지 피가 흐를수 없다지만 어이하여 우리의 심장속에는 사랑과 증오라는 상반되는 두 감정이 흐르고있는것인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려는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책동이 더욱 강화되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인민들속에서 계급교양을 그 어느때보다도 더욱 강화할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습니다.》

미제와 그에 추종하는 어중이떠중이들의 대조선《인권》광란극에 온 나라 인민이 분노로 치를 떠는 이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신천박물관을 현지지도하신 소식은 천만군민의 심장을 철천지원쑤들에 대한 증오로 활화산처럼 타오르게 하고있다.

현시기 반제반미교양, 계급교양을 더욱 강화하는것은 우리 혁명의 전도, 조국의 운명과 관련되는 대단히 중요한 사활적인 문제이라고 하시면서 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수 없는것처럼 반제반미교양, 계급교양을 떠나서 사람들의 자주적삶과 인간의 존엄, 가치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고, 혁명의 승패, 사회주의의 승패는 반제반미교양, 계급교양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데 중요하게 달려있다고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에서 천만년세월이 흘러도 절대로 변할수 없는 계급투쟁의 진리를 다시금 새겨안는 온 나라 인민의 모습이 새로와지고있다.

궁궐같은 휴양소에서 행복의 무아경에 잠겨 웃음짓던 백발의 과학자도, 문수물놀이장에서 류다른 여름정서를 안아보며 기쁨의 물보라를 날리던 청년들도, 번영하는 조국의 눈부신 비약을 격찬하던 시인들도 자신의 심장우에 깊은 생각을 얹는다.

날로 커가는 행복에 도취되여 증오로 펄펄 끓어야 할 심장의 열도가 잠시라도 식어본적은 없는가. 혹시라도 행복의 금방석우에서 지난날을 잊은적은 없는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신천땅에 남기신 자욱을 따라 밤나무골의 화약창고며 사백어머니묘와 백돌어린이묘를 마음속으로 더듬어보는 천만군민의 가슴에서 하나같은 대답이 울려나온다.

아니다. 우리는 순간도 원쑤에 대한 증오를 잊어본적이 없다. 왜냐하면 사회주의 우리 제도를 목숨처럼 사랑하기에, 이 제도가 생명보다 귀중함을 뼈에 절게 체험하였기에.

사회주의 우리 조국, 그 이름 가만히 불러만 보아도 가슴은 긍지로 부푼다.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가 정치의 근본으로 되는 나라, 인민을 나라의 주인으로 내세우고 참된 삶을 안겨준 고마운 품, 학교갈 나이가 되면 선생이 찾아오고 병이 날세라 의사가 찾아오는 이 제도.

세상에 이런 제도가 또 어디에 있는가. 착취와 압박이 없고 누구나 다 일하며 모든 사람들이 한가정처럼 화목하게 살기를 바라는 인류의 리상과 꿈을 현실로 펼쳐보인 우리 제도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제도가 목숨보다 귀중하다. 이 제도를 떠나서는 순간도 살수 없기에 우리 인민은 이 제도를 그토록 사랑하는것이다.

사회주의 우리 제도에 대한 사랑이 남달리 강렬하기에 이 제도를 집어삼키려는 원쑤를 절대로 잊을수도 용서할수도 없는 우리 인민이다.

잊을수 없다. 우리에게서 이처럼 고마운 품을 빼앗으려고 원쑤들이 이 땅에 몰아왔던 피비린 살륙의 광풍을.

미제와 계급적원쑤들에게 무참히 학살된 신천의 무고한 인민들, 그들에게 과연 무슨 죄가 있고 잘못이 있었던가.

선량한 마음들을 무참히 짓밟고 가는 곳마다에서 피비린 살륙의 광풍을 몰아온 원쑤들을 어찌 증오하지 않을수 있으랴.

여기에 조선인민군 군관이였던 김봉수동무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지금으로부터 40여년전 조국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안고 군사복무의 길을 걷던 그는 한 처녀와 결혼하였다. 그 처녀는 어린 나이에 미제승냥이들에게 두 팔을 잃은 리옥희녀성이였다.

그 처녀를 처음 알게 되였을 때 김봉수동무의 심장속에 제일먼저 솟구친것은 원쑤들에 대한 증오였다. 한 처녀에 대한 그의 참된 사랑의 밑바탕에는 바로 처녀의 두팔을 빼앗은 원쑤들에 대한 치솟는 증오심이 흐르고있었다.

그는 처녀와 결혼하였으며 세 딸과 아들의 이름을 김복수, 김하, 김리라, 김원대라고 지었다.

원쑤를 대를 이어 복수하리라!

그 이름을 새겨안고 자식들모두가 혁명의 군복을 입었다. 대를 이어가는 계급투쟁의 길, 조국수호의 길에서 김봉수동무와 그의 아들 김원대동무의 생은 끝났어도 복수자의 대는 억세게 이어지고있으며 중앙계급교양관 강사 리옥희녀성은 70고개를 넘은 오늘도 남편과 아들의 몫까지 합쳐 반제반미교양, 계급교양의 전초선을 지켜가고있다.

세월이 흐르고 대가 바뀌여도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 간직된 사랑과 증오의 감정은 이렇게 줄기차게 이어지고있다. 그것은 우리 조국이 부강해질수록, 원쑤들의 압살책동이 우심해질수록 더더욱 강렬해지고있다.

철천지원쑤와 한하늘을 이고 살고있기에 우리의 사랑과 증오의 감정은 절대로 변할수 없다.

무궁토록 번영할 조국을 누구보다 열렬히 사랑하기에 그 조국을 더럽히려는 원쑤에 대한 증오심도 그만큼 무자비하다.

사랑은 내 조국에, 증오는 원쑤에게!

결코 노래로만 새길수 없는 계급투쟁의 진리를 뼈에 새기고 투철한 대적관념, 반제반미정신으로 만장탄된 계급의 무기를 더욱 억세게 틀어쥐는 길만이 우리의 요람을 지키는 길이라는 것을 다시금 새겨안는 오늘의 하루하루이다.

미제와 계급적원쑤들을 철저히 격멸하고 최후승리를 이룩할 그날까지 우리의 천만군민의 심장은 조국에 대한 사랑과 원쑤들에 대한 증오로 세차게 고동칠것이다.

승철진

계급투쟁의 과녁은 변하지 않는다

불구대천의 원쑤

침략선《셔먼》호의 침입으로 이 땅에 침략과 살륙의 더러운 첫발을 들이민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미제가 우리 인민에게 들씌운 불행과 고통은 이루 헤아릴수 없다.

일제의 조선강점을 비호두둔하고 해방의 기쁨이 넘치던 삼천리강토에 민족분렬의 철조망을 늘여놓은 침략자 미제, 지난 세기 50년대를 비롯하여 년대와 년대를 이어오며 충격적인 도발사건들을 일으켜 우리 혁명의 전진도상에 가장 큰 장애를 조성하고 그 누구의 핵문제, 《인권》문제를 목이 쉬도록 부르짖으며 기어이 우리 조국을 집어삼키려는 미제의 발광은 극도에 이르렀다.

사과 한알때문에 이마에 《도적》이라는 억울한 락인을 찍히운 김명섭소년과 천추만대의 복수를 부르는 신천의 령혼들, 미제의 무한궤도에 꽃망울같은 목숨을 잃은 남녘의 애어린 녀학생들…

천만군민이 세계에 대고 묻는다.

과연 이렇듯 잔인하고 피맺힌 원쑤들과 한하늘을 이고 살수 있단 말인가.

백년숙적

중세기적포악성과 교활성으로 우리의 국권을 유린말살하고 식민지노예의 운명을 강요한 일제,

840만여명의 청장년들과 20만의 녀성들을 로동노예, 군노예, 성노예로 끌어가고 조선의 말과 글까지 빼앗으려고 얼마나 피눈이 되여 날뛰였던가.

그날의 피비린 만행의 증견자들이 아직도 이 땅에 살아있건만 오늘도 일본은 단 한번의 반성도 사죄도 없이 죄악에 찬 과거를 부정하며 외곡하고있다.

아무런 정치적주견도 철학적리념도 가지지 못한 주제에 미국의 모양새를 본따 보잘것없는 돈주머니를 흔들며 《대국》행세를 하는 정치난쟁이의 존재가 너무나도 가증스럽다.

만약 일본이 력사의 교훈을 잊고 또다시 이 땅에 재침의 불을 지른다면 가까우면서도 먼 나라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면전에서 영영 사라져야 할 존재가 된다는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이 백년숙적 일본에 내린 준엄한 선고이다.

민족의 심판을 받아야 할 반역의 무리들

수천년동안 단일민족으로 살아온 동족에게 총부리를 돌려대고있는 남조선괴뢰역적패당들이 이 땅에서 살아숨쉬고있다는 그자체가 민족의 수치이다. 역적무리들은 민족의 이름으로 반드시 처단되여야 한다.

리승만역도로부터 박근혜패당에 이르기까지 민족분렬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이 동족대결에 명줄을 걸고 날뛰여온 매국노들을 우리는 한시도 잊지 않고있다.

온 민족, 전세계가 지지공감하는 통일대강들에는 등을 돌려대고 《드레즈덴선언》이니, 《통일헌장》이니 하며 대결의 낡은 북통을 두드리고 겨레의 통일념원에 악랄하게 도전하는 박근혜와 같은 반역의 무리들을 어찌 용서할수 있단 말인가.

민족반역의 죄악에는 시효가 없다.

우리는 미제의 특등하수인이 되여 민족의 자주권을 깡그리 섬겨바친 추악한 민족의 원쑤, 계급의 원쑤들 그리고 한줌도 못되는 인간쓰레기들을 민족의 심판대에 끌어다놓고 한놈도 남김없이 철저히 징벌할것이다.

리신향

대동강의 수양버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반미교양, 계급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이 높은 계급의식을 가지고 온갖 계급적원쑤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싸워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예로부터 평양은 버드나무가 많아 류경이라 불리워왔다.

우리 민족의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전해주는 대동강의 수양버들은 사람들의 가슴속에 아름다움의 상징으로 새겨져있다. 봄이 오면 푸른 물결우에 실실이 늘어지고 갖가지 목청으로 노래부르는 온갖 새들을 부드러이 품에 안아 대동강반의 풍치를 한껏 돋구어주는 평양의 수양버들,

그러나 언제부터였던가. 그것이 원한과 증오의 증견자로 된것은.

지금도 대동강반의 수양버들아래를 거닐때면 수십년동안 가지가지마다에 방울방울 맺혀 슴배지도 녹지도 않는 원한의 붉은 피방울이 보이는것만 같고 바람결에도 울분과 분노의 웨침소리가 귀전에 메아리쳐 들려오는것 같아 쉬이 걸음을 옮길수 없다.

얼마전 동대원구역 신흥2동에서는 녀맹원들이 준비한 선동극 《대동강의 수양버들》이 진행되였다.

권경희, 김옥봉, 김원옥동무들이 출연하는 선동극은 지난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평양에 기여든 미제승냥이들과 계급적원쑤들이 감행한 살인귀적만행을 생동하게 보여준것으로 하여 주민들의 가슴마다에 복수의 피가 끓어번지게 하였다.

…

대동강반의 수양버들아래에 서있는 한 녀인과 영문도 모르고 어머니치마자락에 감겨도는 5명의 어린것들, 그들은 인민위원회에 있던 남편이 감춘 문건이 어디에 있는지 말하지 않는다고 미제승냥이놈들이 끌어낸 평양의 무던한 녀인과 그 자식들이다. 끝내 문건의 행방을 대지 않는다고 하여 미국놈들은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다섯자식을 토끼잡듯 도끼로 하나하나 찍어버린다. 미국제군용도끼로 열두살 난 맏이의 목을 내리찍고 이어 비명을 지를새도 없이 둘째, 셋째, 넷째와 두살잡이 막내의 잔등과 가슴에 서슴없이 도끼날을 박는 야수들, 금방까지도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푸른 하늘을 바라보던 귀여운 어린것들의 몸에서 피가 뿜어져나와 대동강반을 붉게 물들이건만 그앞에서 너털웃음을 치는 미제살인마들…

선동극은 끝났지만 사람들은 움직일줄 몰랐다.

미제에 대한 증오로 가슴이 떨리고 복수의 불길이 분화구를 찾는 녀인들속에서는 승냥이 미제를 규탄하는 목소리들이 세차게 터져나왔다.

어머니의 눈빛은 다심하다고 하였다. 어머니의 마음은 풍요한 가을처럼 한량없이 부드럽고 선량하다고 하였다.

하다면 왜서 이 나라 어머니들의 마음속에는 그렇듯 풀리지 않는 차디찬 분노의 얼음이, 복수의 고드름이 맺혀 녹지를 않는것인가.

지난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미제승냥이놈들은 평양시에서만도 수많은 주민들을 야수적으로 학살하였다. 원쑤들의 귀축같은 살인만행에는 한계가 없었고 남녀로소 가림이 없었으며 미제승냥이놈들의 발길이 가닿는 곳마다에서는 인민들의 피가 마를새 없었다.

그때부터였다.

대동강반의 아름다움을 더해주던 수양버들이 미제의 살인귀적만행을 전하는 력사의 증견자로 된것은.

《대동강의 수양버들》,

이것은 결코 선동극이 아니였다.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들이 겪은 실화였다.

그날 동대원구역의 많은 어머니들은 자식들을 이끌고 대동강반에 나왔다. 수양버들에 맺힌 원한을 전하는 어머니들의 이야기를 듣는 아들딸들의 눈빛은 복수심으로 불타올랐다.

오늘도 대동강반으로, 아니 원쑤들의 피비린 자욱이 찍혀있는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이 나라의 어머니들은 자식들에게 부탁한다.

무자비한 복수를, 복수를!

본사기자 홍성철

행복할수록 잊지 말자, 이 땅에 서린 피의 교훈을!

승냥이 미제에게 복수의 철추를

미제승냥이무리들은 패주를 하루 앞둔 날 밤에 나의 어머니, 어린 두 형과 함께 철부지였던 나를 체포하여 화약창고로 끌어갔다.

어머니치마폭에 싸여있다가 그 야수같은 놈들에게 목덜미를 잡히워 끌려가보니 창고안에는 벌써 숱한 어린이들이 꽉 차있었다.

밖에서는 목이 터져라고 자식들을 찾는 어머니들의 울부짖음소리가 처참하게 들려왔다.

자지러진 울음소리, 비명소리가 꽉 차서 스산한 살풍경을 이루었다.

꼭 무서운 꿈을 꾸는것만 같았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벌컥 창고문이 열리더니 피상한 짐승소리마냥 너털웃음을 터뜨리며 미제살인귀들이 뛰여들어 휘발유를 들붓기 시작했다. 이윽고 공기창으로 불망치들이 날아들어 삽시에 천정까지 불길이 타래쳐올랐다. 움직이는 불덩어리가 되여 어린이들이 여기저기서 뒹굴고 숨넘어가는 고함소리로 귀가 멍멍해졌다. 불길에 휩싸인 어머니들이 갇힌 창고에서는 불시에 수류탄터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

이것은 내가 직접 체험한 미제살인귀들이 저지른 귀축같은 만행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것이다.

내 나이도 이제는 일흔이 다되였다. 사람이 늙으면 심신이 쇠잔해지고 옛일도 희미해지기 마련이다.

그러나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원쑤들의 살인만행은 잊을수 없다.

무고한 사람들을 사지를 찢어 죽이고 목매달아 죽이고 우물에 처넣어 죽이고 불태워죽인 원쑤를 어떻게 잊을수 있겠는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영원히 살아있는것이 바로 복수자의 원한임을 한생을 통하여 나는 통절히 깨달았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수많은 참관자들의 가슴마다에 신천땅의 피의 절규를 새겨주고있다.

승냥이 미제에게 무자비한 복수의 철추를 내리라!

신천박물관 강사 주상원

우리 인민에게 저지른 강도 일제의 죄행에 치솟는 격분을 금치 못하고있는 참관자들
—운전군계급교양관에서— 본사기자 리진명 찍음

환상때문에 빚어진 비극

원쑤에 대한 털끝만 한 환상도 비극적인 죽음으로 이어진다는 피의 교훈은 우리 수산땅의 곳곳에도 비문마냥 새겨져있다.

수산땅은 동으로는 송림, 북으로는 평양, 남으로는 은률로 통해있는 도로분기점이다.

이런 지리적조건을 타산하고 벌써 일제강점시기부터 이곳에 검은 마수를 뻗친 미국선교사놈들은 수산면(당시)에 6개의 례배당을 세우고 우리 인민들에게 숭미사대의식과 노예적굴종사상을 고취하였다.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에 이곳이 미제와 계급적원쑤들의 책동이 가장 우심한 지역의 하나로 된 원인이 여기에 있다.

뿌리깊은 숭미사대의식과 노예적굴종사상으로 하여 수산땅에서는 실로 가슴아픈 비극이 적지 않게 생겨났다.

수산면 백운리(당시)에서 살고있던 정씨형제가 당한 일도 그러한 비극중의 하나이다.

어느날 동생이 후퇴의 길에서 집에 잠간 들렸다가 놈들의 삼엄한 경계로 하여 일시 몸을 숨기게 되였다.

헌데 놈들의 강압에 못이겨 리《치안대》에 들어있던 형의 실언으로 하여 그러한 사실이 알려지게 되였다.

동생을 체포하려는 놈들의 낌새를 눈치챈 형은 생각하던 끝에 집에서 제일 큰 재산으로 여기던 돼지를 잡고 술추렴까지 시키면서 면《치안대》고문을 비롯한 놈들에게 사정을 하였다.

그러나 놈들은 눈섭 하나 까딱 않고 그의 동생을 체포하여 무참히 학살하였다.

결국 원쑤에 대한 어리석은 환상이 동생을 죽음에로 몰아넣었던것이다.

이런 비극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피의 교훈은 무엇인가.

원쑤에 대한 환상은 죽음으로 보상된다는것이다.

수산리계급교양관 관장 최정숙

훌륭한 가풍, 아름다운 미래

만경대구역 금성3동 13인민반 리덕성동무의 가정에서

자식을 참되게 키우려는것은 모든 부모들의 한결같은 지향이다. 단지 피줄을 이은 혈육이여서만이 아니라 조국의 미래를 책임진 심정으로 자녀교양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는 가정들중에는 만경대구역 금성3동 13인민반 리덕성동무의 가정도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자녀들을 잘 키우는것은 부모들이 당과 혁명, 사회와 인민앞에 지닌 중요한 임무입니다.》

세 자식의 아버지인 리덕성동무는 자녀들의 교양문제가 한 가정의 문제만이 아닌 조국의 래일과 직결된 문제라는것을 자각하고 여기에 깊은 관심을 돌려왔다. 학교와 항상 깊은 련계를 가지고 자녀들의 학습과 조직생활에 대하여 알아보군 하였으며 사회와 집단을 위한 좋은 일을 찾아하도록 떠밀어주었다. 지난 기간 그의 자녀들이 각지 탄광들과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 위성과학자주택지구를 비롯한 중요대상건설장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꾸준히 진행해올수 있은데는 자식들로 하여금 성실한 땀을 바쳐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헌신하는 참된 정신세계를 지니도록 하려는 그의 남모르는 노력이 깃들어있다.

지난 여름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동상을 모시기 위한 사업이 한창이던 어느 한 단위로 성우와 진우가 지원물자를 안고 찾아갔던적이 있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아들들에게서 그곳 일군들이 기특하다고 칭찬했다는 이야기며 그들에게 지원물자를 넘겨주고 그냥 돌아섰다는 이야기를 들은 리덕성동무의 마음은 무거웠다.

그날 밤 리덕성동무는 안해인 김주화동무에게 말했다.

《여보, 우리가 그 무슨 평가를 바라고 애들 얼굴이나 내자고 지원사업을 하는거야 아니지 않소. 이 무더운 날 우리 애들이 땀흘려 일하는 창작가들에게 시원한 물이라도 한고뿌 떠다주고 왔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소.》

며칠후 김주화동무는 두 아들과 함께 만경봉의 정갈한 샘물과 많은 량의 작업장갑과 세면수건을 가지고 전투장으로 다시 찾아갔다.

절세위인들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을 불러일으키는 만경봉의 맑고 정갈한 샘물은 창작가들에게 참으로 큰 힘을 주었다.

지원의 나날속에 두 아들의 마음속에 티없이 깨끗한 충정의 마음이 더 깊이 새겨졌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동상을 높이 모시기 위한 사업에 뜨거운 지성을 바친 만경대구역의 김주혁고급중학교 학생 리성우와 광명고급중학교 학생 리진우를 비롯한 평양시안의 여러 학생소년들의 소행을 높이 평가해주시였다.

응당 해야 할 일을 한 자식들에게 안겨주신 뜨거운 은정에 가슴적시며 리덕성동무는 20년전 7월의 그날을 돌이켜보았다.

비내리는 만수대언덕, 수령님의 동상에 드릴 화환이 젖을세라 웃옷을 벗어 펼쳐들고 만수대를 오르던 김책공업종합대학 학생들속에 리덕성동무도 있었다.

사회주의대가정의 행복이 어떻게 마련되는가를 피눈물의 언덕에서 새겨안은 그였기에 고아를 맡아 친딸처럼 키워 조국보위초소에 내세웠고 두 아들도 당의 뜻을 받들어나갈 기둥감으로 키우고있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정과 의리를 대를 이어 물려갈 집안의 가풍으로 세우고 자기의 책임을 다해가는 이런 가정들이 있어 우리 조국의 래일은 더욱 아름다와지는것이다.

본사기자

국제장애자의 날에 즈음한 기념모임

2014년 국제장애자의 날에 즈음한 기념모임이 3일 김원균명칭 평양음악대학에서 진행되였다.

모임에는 조선장애자보호련맹 중앙위원회 위원장인 강하국 보건상, 관계부문 일군들, 장애자들과 가족들, 김원균명칭 평양음악대학 교직원, 학생들, 주조 국제기구대표부성원들, 여러 나라 대사관성원들이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교육, 문화, 로동 등 분야에서 장애자들의 리익과 편의를 적극 보장하기 위한 우리 당과 국가의 시책에 의하여 올해 이 부문 사업에서 이룩된 성과들과 여러 나라, 국제기구들, 해외동포들과의 교류와 협조사업이 소개되였다.

이어 참가자들은 장애자예술소조원들과 김원균명칭 평양음악대학관현악단 연주가들의 예술공연을 관람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어버이사랑속에 과일향기 넘친다

경흥관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당에 있어서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하여주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요즘 경흥관 야외매대가 더욱 흥성이고있다.

추운 겨울이지만 갖가지 과일향기가 짙게 풍겨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있다.

길손들도 가던 길을 멈추고 매대로 다가선다. 사과, 귤, 대추, 왕다래, 수박, 바나나, 파이내플…

갖가지 과일을 한아름 사들고 돌아가는 사람들의 얼굴마다에 웃음꽃이 활짝 피였다.

그뿐인가. 구럭마다에 과일을 듬뿍 담아주는 봉사자들의 얼굴에도 기쁨이 한껏 어려있다.

《손님들이 좋아합니다.》

판매원 윤미화동무의 말이다.

그러면서 그는 손님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오늘의 과일봉사에 얼마나 뜨거운 우리 원수님의 사랑이 깃들어있는지 열이면 열, 백이면 백사람에게 다 말해주고싶다고 덧붙였다.

우리 원수님의 사랑과 은정!

정말 그랬다. 사람들이 좋아하고 즐겨찾는 야외매대의 과일봉사에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은정이 깃들어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얼마전 결혼식식당을 갖추고있는 경흥관에서 남방과일을 비롯한 여러가지 과일들로 결혼상도 차려주고 야외매대에서 봉사도 할수 있게 과일수송용랭장차들을 보내주시였다. 한번에 많은 과일을 실어나를수 있는 과일수송용랭장차들은 지금 과일향기를 풍기며 수도의 거리를 씽씽 달리고있다.

《손녀애한테 주려고 사과를 샀다네.》

만경대구역 갈림길2동에 살고있는 리창애로인은 이렇게 말하며 묵직한 구럭을 들어보였다. 사과향기가 물씬 풍겼다.

그러는 로인의 모습을 바라보던 경흥관 로동자 허금옥동무는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였다.

얼마전 퇴근길에 올랐던 그는 뻐스안에서 한 녀성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였다.

먹음직스런 왕다래를 들고있는 아이를 품에 안은 그는 요즘 경흥관 야외매대에서 과일봉사가 시작된데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녀인은 군밤, 군고구마, 부식물, 지짐류, 빵류 등 봉사로 흥성이는 야외매대에 과일매대가 생겨서 더 흥성인다며 자기가 가지고가는 사과구럭도 펼쳐보이는것이였다.

그러면서 그곳 봉사자들이 사철 과일을 떨구지 않고 수도시민들에게 봉사하게 된다고 하였다는것까지 덧붙여 말하였다. 그는 마치 자기가 봉사자라도 되는듯 하였다.

그의 모습을 보며 허금옥동무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저들이 과연 우리 원수님의 사랑을 다 알가?

하여 그날 허금옥동무는 뻐스를 탄 길손들에게 경흥관에 깃든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이며 야외매대의 과일봉사에 깃든 경애하는 원수님의 은정에 대해 다 말해주었다고 한다.

경흥관!

인민들에게 한가지를 주시면 열백가지를 더 주고싶어하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의 손길아래 태여난 인민의 봉사기지이다.

7가지 맥주맛으로 소문이 자자한 대동강맥주집이며 만사람의 축복속에 새 가정을 이루는 청춘남녀들의 축복의 노래소리 차넘치는 결혼식식당, 수도시민들 특히 가정주부들에게 더없이 친근해진 야외매대들…

거기에 오늘은 또 과일향기 가득 풍기니 얼마나 좋은 우리 생활인가.

먹음직스런 과일을 가득 안고 돌아가는 사람들의 밝은 모습을 보니 눈굽이 찌릿해졌다.

당의 은정속에 행복한 생활을 누려가는 인민들의 모습을 우리 장군님께서 보시였으면 얼마나 기뻐하시였으랴.

가슴이 뜨거워진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속에 어제는 온 나라 방방곡곡에 사회주의바다향기 풍기고 오늘은 수도에 있는 인민의 봉사기지에 갖가지 과일향기 짙게 풍기니 이게 날로 좋아지는 우리의 생활이 아니란 말인가.

지금 경흥관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은정이 수도시민들에게 더 빨리, 더 잘 가닿게 하기 위하여 과일수송사업을 더욱 짜고들면서 손님들에 대한 봉사활동을 활발히 벌리고있다.

과일수송을 맡은 운전사들은 장거리수송도중에 과일이 손상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마음을 쓰고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경흥관의 일군들과 봉사자들은 모든 초소들에서 이전보다 봉사수준을 한계단 더 높이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있다.

모든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고 제일 좋은것이 인민에게 우선적으로 베풀어지는 우리 사회!

하기에 우리 인민은 온 세상에 소리높이 자랑한다.

경애하는 원수님 계시여 우리의 생활은 나날이 좋아질것이며 우리 사회엔 사회주의향기가 더욱 차넘칠것이다!

본사기자 오은별

북침야망이 깔린 위험한 도발광대극

지금 이 땅 그 어디를 가나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반공화국《인권》모략책동을 단죄규탄하는 천만군민의 격노한 보복의 함성이 메아리치고있다. 타번지는 분노는 하늘끝에 닿고있다. 어찌 그렇지 않겠는가.

존엄높은 우리 공화국의 영상을 감히 훼손하고 우리 인민의 삶의 터전인 사회주의제도를 허물어보려고 발악하는 미국과 괴뢰역적패당의 반공화국대결광란은 최절정에 달하고있다.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원쑤들의 모략적인 《인권》소동이 어느 한시도 그친적 없었지만 그것이 지금처럼 집중적으로 도수높게 국제무대와 남조선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광기를 띤적은 일찌기 없었다.

괴뢰패당은 미국과 야합하여 우리 공화국을 한사코 해치려고 피를 물고 덤벼들고있다. 이것은 괴뢰들이 우리와 대화하고 협력할 생각을 꼬물만큼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그들이 추구하는것은 외세와의 공조로 우리 공화국을 고립압살하는것뿐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남조선괴뢰들의 반공화국《인권》소동은 우리의 존엄높은 사회주의제도를 해치기 위한 범죄적인 《대북정책》의 가장 뚜렷한 발로이다.

현 괴뢰집권자는 미국대통령 오바마가 남조선을 행각할 당시 그 무슨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원칙을 기반으로 하는 통일》을 제창하였다.

도이췰란드를 행각할 때에도 도이췰란드의 통일이 《부러움의 대상》이며 저들이 《가야 할 목표》라고 로골적으로 떠들어댔다.

남조선당국자는 집권초기부터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통일》을 떠벌이며 우리를 해칠 흉심을 드러내놓았다. 그가 들고나온 《신뢰프로세스》라는것자체가 《신뢰》의 간판밑에 저들의 대결책동을 합리화하고 동족을 반대하는 정치군사적공세를 강화함으로써 우리를 《변화》에로 유도하고 체제통일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불순한 각본이다.

그 무슨 《드레즈덴구상》이라는것 역시 《도이췰란드식통일》을 본따기 위한것이다. 남조선괴뢰들이 쩍하면 떠들어대는 《통일대박》론이라는것도 체제통일망상을 《대박》이라는 말로 미화한것이다.

괴뢰패당은 지금 《최상의 통일지침》을 만들겠다고 흰소리를 치면서 《통일헌장》이라는것을 꾸며내려고 분주탕을 피우고있다. 이것 역시 민족공동의 자주통일강령을 외면하면서 체제통일에 기를 쓰고 매달리는 괴뢰패당의 대결망동을 집중적으로 폭로해주고있다.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온 겨레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자주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사상과 제도를 존중하고 서로의 차이를 뛰여넘어 적대관념을 버려야 한다.

하지만 괴뢰패당은 말로는 대화와 북남관계개선을 운운하면서도 실제로는 동족의 사상과 제도를 적대시하면서 반공화국대결에 미쳐날뛰였다. 특히 현 괴뢰정권의 등장이후 남조선에서 체제대결소동은 극도에 달하고있다.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공화국의 최고존엄과 체제를 악의에 차서 헐뜯는 삐라살포소동과 《인권》모략책동이 최악의 단계에 이르고있는것도 그것을 말해주고있다.

체제대결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괴뢰들의 《대북정책》의 진면모가 날날이 드러나고 그것이 날로 더욱 독을 쓰고있는 이상 그에 따른 우리의 대응도 명백하다.

우리 공화국은 이미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반공화국《인권》모략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기 위한 초강경대응전을 선포하였다. 공화국의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하고 온 겨레의 자주통일념원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의 무자비한 대응에 의해 괴뢰패당의 《대북정책》과 어리석은 체제통일야망은 산산조각이 나고야말것이다.

괴뢰패당이 감행하고있는 반공화국《인권》모략책동은 북침전쟁도발의 구실을 만들기 위한 위험천만한 망동이다.

지금껏 남조선괴뢰들은 핵문제와 함께 《인권》문제를 우리 공화국을 모해하고 침략전쟁을 도발하기 위한 수단으로 써먹으면서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방해하고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격화시켜왔다.

사실상 괴뢰들이 요란히 떠드는 그 무슨 《북인권》문제란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이 우리 공화국의 대외적영상을 흐려놓고 우리를 겨냥한 국제적압박공조를 실현하기 위해 조작한 음모책동의 산물이다.

우리 인민은 자주적인간의 참된 삶을 꽃피워주는 인민대중중심의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에서 사는 긍지높은 인민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고 인민의 존엄과 리익을 최우선시하는것이 국가활동의 최고원칙으로 되고있다.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정치적권리를 가지고 자주적존엄과 삶을 마음껏 향유하며 보람있게 사는 나라는 이 세상에 오직 우리 공화국밖에 없다. 우리는 이에 대하여 남다른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있으며 고마운 사회주의제도를 지켜 목숨도 서슴없이 바치고있다.

하지만 괴뢰들은 우리 공화국의 현실에 대해 파렴치하게 외곡하면서 《인권》모략에 점점 더 기승을 부리고있다. 괴뢰패당은 파렴치한 도발로 남조선은 물론 국제사회에서 반공화국여론을 적극 조장하고 대결책동을 합리화하면서 우리 공화국을 침략하기 위한 구실을 마련하려고 꾀하고있다.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우리 공화국의 노력으로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가 완화되고 대화와 접촉의 국면이 조성되고있던 관건적인 시각에 괴뢰들이 인간추물들을 내몰아 대화상대방을 반대하는 삐라살포와 《인권》모략에 열을 올려 모처럼 마련된 북남관계개선분위기를 파괴한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그것은 《인권》보호를 구실로 침략전쟁을 일으켜 다른 나라들의 자주권을 마구 유린하는 미국을 등에 업고 북침전쟁으로 우리 공화국의 존엄높은 사회주의제도를 해치려는 괴뢰패당의 흉악한 야망의 필연적결과이다.

괴뢰들의 범죄적인 《인권》모략소동은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과 위력이 높이 발휘되고있는데서 공포를 느낀 자들의 단말마적인 발악이다.

우리 공화국은 반공화국적대세력의 끈질긴 제재와 압살책동속에서도 선군의 기치높이 만난시련을 뚫고 강성국가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고있으며 세계정치무대에서 자주권과 존엄을 높이 떨치고있다. 력사의 모진 광풍을 밀어내며 과감히 전진하는 우리 공화국의 억센 기상앞에서 적대세력들은 전률하고있다.

당황망조한 괴뢰들은 물에 빠진자 지푸래기라도 잡는 격으로 《인권》모략소동에 기대를 걸면서 한사코 북침야욕을 실현하려고 더욱더 발악적으로 나오고있다.

하지만 어림도 없다. 괴뢰들이 제아무리 모략광대극을 벌려놓아도 그것은 부질없는 망동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의 해를 가리울수 없듯이 그 어떤 날조와 기만으로도 우리 공화국의 존엄높은 영상을 흐려놓을수 없다.

반역무리들이 반공화국《인권》모략에 광분해도 적대세력의 침략적도전을 무자비하게 짓뭉개고 나라의 자주권을 철옹성같이 지키며 통일조선의 휘황한 미래를 앞당겨올 우리 군대와 인민의 혁명적의지는 날로 더욱 억세여지고있다.

괴뢰패당은 우리의 단호한 립장과 철의 의지를 똑바로 보고 함부로 날뛰지 말아야 한다.

라 설 하

실업사태를 통해 본 험악한 인권실태

인권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는 남조선에서 로동의 권리가 무참히 짓밟히고있는것은 그 첫자리에 놓을만 하다. 일자리를 빼앗긴 로동자들이 차고넘치는 험악한 현실을 통해 세계최악의 인권불모지 남조선의 인권실태를 파헤쳐보자.

로동의 권리는 가장 초보적인 인권이라고 말할수 있다. 하지만 남조선로동자들은 일할 권리를 반인민적통치에 의해 여지없이 유린당하고있다. 남조선에서 실업은 근로대중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첫째가는 요인으로 되고있다.

자료에 의하면 남조선에서 현 보수《정권》이 들어선 이후에도 실업률은 끊임없이 높아지고있다. 이로 하여 350여만명이였던 완전실업자가 1년 남짓한 사이에 450여만명으로 늘어났다. 하루 또는 몇개월정도 고용되여 일하며 얼마 안되는 임금을 받는 반실업자(비정규직포함)는 1000만명으로 늘어났다. 하루아침에 직업을 잃은 한 로동자가 자식들에게 죄많은 아버지를 용서해달라는 마지막말을 남기고 목숨을 끊은 바로 이것이 실업사태로 골병이 든 남조선에서 도탄에 빠져 시달리는 근로대중의 불행한 모습이다.

더욱 심각한것은 청년실업문제이다. 현 집권자가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큰소리를 쳤지만 그가 권력의 자리에 들어앉은 첫해에 벌써 20대청년들의 취업률이 대폭 떨어졌다. 괴뢰통계청은 올해초 청년취업률이 관련통계를 내기 시작한 1963년이후 50여년만에 사상 최저를 기록했으며 청년들의 《취업의 문》은 더욱 좁아질것이라고 아우성을 쳤다. 보도에 의하면 남조선에서 20대청년들의 일자리는 4만 3 000여개, 30대청년들의 일자리는 2만 1 000여개나 줄어들었다. 이로 하여 오늘 남조선에서 청년실업사태는 최악의 지경에 이르고있다.

청년들의 실업률이 높아지고있는 현상은 사회적으로 커다란 악영향을 미치고있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실업을 당한 수많은 청년들이 비관과 절망속에 몸부림치고있다. 그 비참한 모습은 최근 남조선항간에서 나도는 류행어들에도 그대로 비껴있다. 겹쳐드는 생활난으로 사랑, 결혼, 해산을 포기하는 《3포세대》, 그것으로 하여 더욱 증대되는 불안, 불만, 불신속에 병들어가는 《3불세대》, 이것이 바로 남조선의 20대, 30대청년들의 처지를 보여주는 대명사이다. 남조선에서 오죽 청년실업사태가 심각하면 20대의 90%는 백수(직업없는 사람)라는 뜻에서 《이구백》, 장기간 취직을 못하고있는 대학졸업생에 대해서는 《장미족》, 31살이 되면 취직할수 없다는데서 《삼일절》이라는 말들이 류행어로 나돌겠는가.

청년실업의 만연은 청년들을 극도로 타락시키고있다. 남조선에서 모든것을 자포자기한 《청년백수》가 72만여명에 달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각계에서는 수많은 청년들이 취직을 포기하고 허송세월을 하는 광경은 《우리 사회의 뼈아픈 자화상》이라는 탄식이 그치지 않고있다. 이에 대해서는 남조선언론들도 《〈바늘구멍〉만 한 청년취업의 문 올해는 더 좁아진다》, 《청년실업은 늘고 전세값은 뛰고》 등으로 개탄하면서 경제악화에 따른 정리해고와 실업위기는 가뜩이나 심각한 민생에 사망선고를 내리고있다고 우려를 표시하고있다.

남조선에서 실업률이 높아가고있는것으로 하여 근로대중의 생활상처지는 날로 어려워지고있으며 이로 하여 도처에서 힘들어 못살겠다는 인민들의 원성이 터져나오고있다. 1 000여만명의 빈곤층이 삶의 막바지에서 죽지 못해 살아가고있다.

직업을 잃은 사람들이 길거리 장사로라도 연명하려고 거리와 골목들에 차려놓은 가게방들마저 반역패당의 강제철거소동으로 산산이 부서져나가고있다. 얼마전 서울의 강남역 대도로주변에서 괴뢰당국은 빈민들의 유일한 생존수단인 가게들을 철거시키려고 깡패들을 내몰아 란동을 부리였다. 이에 항거하여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빼앗길바에는 차라리 여기서 죽겠다고 절규하면서 굴함없는 항의투쟁을 벌리였다.

남조선의 한 언론은 《박근혜〈정권〉1년 민생은 처참하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민생은 더 이상 기댈 곳이 없다. 가히 기나긴 어둠의 동굴 한가운데 있는 상황이다.》라고 전하였다.

남조선이란 이런 사람 못살 곳이기에 60%이상에 달하는 사람들이 《다시 태여난다면 다른 나라에서 태여나고싶다.》고 자기 심정을 터놓았다고 한다.

오늘도 로동의 권리,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속에 몸부림치는 남조선인민들은 희세의 인권유린악마들을 이렇게 피타게 절규하고있다.

《피묻은 입으로 인권을 말하지 말라!》

본사기자 리 효 진

미국은 온갖 형태의 민주주의기준과 자유보장의무를 무조건 준수하여야 한다

로씨야외무성 공식대변인이 언명

로씨야외무성 공식대변인 알렉싼드르 루까쉐비치가 11월 26일 미국에서 흑인청년이 백인경찰에 의해 살해당한 사건과 관련한 립장을 표명하였다.

그는 퍼구슨시를 비롯한 미국의 전국도처에서 반인종주의시위가 계속 격렬하게 벌어지고있는 사태는 미국에서 아직도 심각한 인종적분렬과 차별, 불평등을 해결하지 못하였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고 말하였다.

미국에서의 이번 대규모적인 시민들의 분노의 폭발과 사법당국의 불균형적인 대응은 그것이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심각한 인종적분렬과 차별, 불평등을 끝끝내 해결하지 못한 미국식《민주주의》의 체계적인 허점이라는것을 다시금 확증해주고있다, 바로 흑인공민들이 의연 미국에서 사회적보호를 받지 못하는 주민들로 되고있으며 사법기관들의 폭행과 박해를 정기적으로 받고있다고 그는 비난하였다.

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모스크바에서는 18살 난 아프리카계미국인 마이클 브라운에게 총을 쏜 경찰에게 책임을 추궁하지 않을데 대한 법정판결과 관련하여 대중적항의행동이 계속되고있는 퍼구슨에서의 긴장한 상황을 우려를 가지고 지켜보고있다.

도시에 국가무력과 군사기술기재가 투입되여 항의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최루성가스를 포함한 특수기술기재를 사용하고있으며 체포소동이 그치지 않고있다.

퍼구슨시민들과의 련대성구호를 든 시위는 사실상 미국의 모든 주들에서 벌어졌다. 게다가 일부 경우 자기의 공민적립장을 표명하려던 사람들이 경찰의 가혹한 저항에 부딪쳤다. 미국은 다른 나라들에서 반대파의 《권리》에 관심하는척 하면서도 자기 나라에서 벌어지는 항의시위에 대해서는 《위법행위》로, 《비법적인 집회》로 묘사하면서 그것을 가로막기 위해 무력도 거리낌없이 동원하고있다.

로씨야는 퍼구슨과 미국의 기타 도시들에서의 사태를 주시하면서 미국측에 온갖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등 민주주의기준과 공민들의 자유보장과 관련하여 자국이 걸머진 의무를 무조건 준수하여야 한다는데 대해 상기시킬것이다.

국방력강화와 사회적진보를 위하여

어뢰시험발사

이란에서 최근 새로 개발한 국내산 어뢰시험발사가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

11월 22일 이란군 해군사령관은 이 어뢰가 앞으로 진행될 실전훈련들에 사용될것이라고 밝혔다.

전염병방지노력

라오스가 최근 에볼라비루스감염증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정부는 수도를 비롯한 나라의 모든 지역들에서 전염병이 침습하지 못하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우는 한편 주민들에게 에볼라비루스감염증과 관련한 위생선전사업을 강화하고있다.

11월 27일 이 나라 신문 《비엔티안 타임스》가 밝혔다.

범죄방지성과

캄보쟈경찰이 11월 28일 수도의 교외에서 약 5.1t의 가짜의약품을 불태워버렸다.

이 의약품들은 2012년부터 나라의 국경지역 초소들에서 압수된것이라고 한다.

지역적협조 강화

남아시아지역협조련합 외무상회의가 11월 24일 네팔의 까뜨만두에서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기구의 지위와 역할을 높이며 성원국들사이의 협조를 강화할데 대한 문제들이 토의되였다.

회의참가자들은 환경 및 재해관리쎈터를 새로 내오기로 합의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인디아에서의 옷생산

정벌의 불소나기를 청하는 망동

지금 국제무대에서 우리 공화국을 고립압살하기 위한 미국의 날강도적인 《인권》모략책동이 절정에 달하고있는것과 때를 같이하여 남조선괴뢰들의 군사적도발망동도 극히 엄중한 단계에 이르고있다.

알려진것처럼 지난 11월 괴뢰호전광들은 력대 최대규모의 《2014 호국》북침전쟁연습을 벌려놓았다. 괴뢰륙, 해, 공군 및 해병대 병력 33만여명과 2만 3 000여대의 각종 기동장비들, 60여척의 함선, 공군무력의 절반에 달하는 비행기들이 동원된 이번 전쟁연습은 명백히 우리 공화국에 대한 불의의 선제공격과 전면전쟁도발을 노린 매우 위험천만한 불장난소동이였다.

호전광들은 그 누구의 《도발에 따른 대비》와 《전면전》에 대해 떠들며 10여일동안이나 웅근 하나의 전쟁을 치를만한 방대한 무력을 내몰아 남조선의 지상과 해상, 공중 그리고 군사분계선 전지역에서 합동상륙훈련을 비롯한 각종 형태의 공격훈련들을 미친듯이 벌리였다.

괴뢰들이 《2014 호국》불장난에 그 무슨 《방어》의 간판을 씌웠지만 대결과 전쟁에 환장한 그들의 호전적정체는 결코 숨길수 없다. 몇가지 사실이 그것을 말해주고있다.

지난 11월 12일 호전광들은 《코브라》공격직승기의 화력지원하에 륙군 11기계화보병사단의 1 200여명에 달하는 병력과 200여대의 《K—200》장갑차, 《K—1》땅크 등을 투입하여 로골적인 공격연습을 감행해나섰다. 이에 대해 괴뢰들자신이 그 누구의 《방어진지를 무너뜨리고 교두보를 확보하는 훈련》이라고 떠들어댔다. 13일과 14일, 16일에는 《도발원점과 지원세력》에 대한 《타격》을 떠들며 경기도와 남조선강원도 등 여러 지역에서 포사격을 해대며 질은 화약내를 풍기였다. 15일부터 20일까지 괴뢰해군과 해병대는 포항을 비롯한 해안지역에서 대규모적인 북침상륙훈련을 감행하였다.

괴뢰들의 도발적인 북침합동군사연습은 가뜩이나 첨예한 북남관계를 일촉즉발의 초긴장상태에 몰아넣었다. 《2014 호국》전쟁연습은 우리에 대한 극도의 적대감과 침략야망에 사로잡혀 북남사이의 무력충돌을 일으키고 그것을 기회로 하여 북침전면전쟁을 도발하려는 반역패당의 음흉한 기도를 뚜렷이 드러내보였다.

호전광들이 《2014 호국》전쟁연습의 테두리내에서 군사분계선 전지역에 걸쳐 벌린 불장난소동들은 그야말로 화약고옆에서 튀는 불꽃이나 다름없었다. 특히 괴뢰패당이 《2014 호국》전쟁연습을 종결하면서 서해 5개 섬일대에서 벌려놓은 모험적인 해상사격훈련은 우리에 대한 고의적인 도발이였다.

지난 11월 21일 괴뢰호전광들은 《2014 호국》전쟁연습이 막을 내리는것과 관련하여 우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쌍방이 첨예하게 대치되여있는 서해 5개 섬일대에서 대규모적인 해상사격훈련을 감행해나섰다. 이날 괴뢰들은 그 무슨 《북의 해안포를 정밀타격》한다느니 뭐니 하고 허세를 부리면서 미싸일을 발사하고 수백발의 포탄을 쏘아대며 전쟁광기를 부리였다.

서해열점수역이 얼마나 위험한 곳인가 하는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이곳에서의 사소한 무력충돌도 삽시에 전면전쟁으로 번져질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뢰호전광들은 부디 이곳에서 도발적인 해상사격훈련을 감행하였다.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것은 묻지 않아도 뻔하다. 현실은 괴뢰들이 북남사이의 무력충돌과 전쟁도발을 작정하고 군사적도발에 나섰다는것을 말해준다. 한마디로 말하여 괴뢰들은 전쟁도발의 구실을 마련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극히 예민한 서해 5개 섬일대에서 해상사격훈련을 벌리였다.

최근 괴뢰패당이 줴치는 호전적악담들도 그들이 새 전쟁도발을 작정하고 분별없이 날뛰고있다는것을 립증해주고있다. 지난 11월 23일 괴뢰국무총리인 정홍원은 연평도포격전이 있은지 4년이 되는것과 관련한 《추모》광대극에서 《북방한계선의 침범》이니, 《끊임없는 도발》이니 하고 우리를 마구 걸고들면서 《단호한 응징》을 떠들어댔다. 괴뢰군부호전광들도 이날 저마다 《응징》나발을 불어대면서 극도의 전쟁열을 고취하였다.

미국과 야합하여 반공화국《인권》모략소동에 미쳐날뛰면서 북침전쟁의 불집을 터치지 못해 지랄발광하는 이런 대결미치광이, 호전광들때문에 북남관계가 파괴되고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위험이 날로 고조되고있는것이다.

하지만 괴뢰호전광들은 북침전쟁도발소동이 섶을 지고 불속에 뛰여드는 어리석은 망동이라는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괴뢰들이 허황한 망상에 사로잡혀 연평도의 교훈을 망각하고 계속 군사적도발에 광분한다면 차례질것이란 무자비한 징벌뿐이다.

이번에는 연평도만이 아니라 괴뢰소굴전체가 징벌의 불소나기를 피할수 없다는것을 호전광들은 명심해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장 윤 남

지역나라들과의 관계발전에 힘을 넣고있는 로씨야

우크라이나사태의 책임을 로씨야에 밀어붙이면서 미국과 서방이 일방적인 제재와 압력책동에 매여달리고있는데 대처하여 로씨야정부는 독립국가협동체 성원국들과의 관계발전에 많은 힘을 넣고있다.

특히 이 나라들과의 경제적협력에 선차적인 힘을 넣고있다.

알려진바와 같이 지난 10월 벨라루씨의 민스크에서 유라시아경제리사회 수뇌자회의가 있었다.

회의에서는 다음해 1월 1일부터 유라시아경제동맹이 자기 기능을 시작하는것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존재해온 유라시아경제공동체를 해체하기로 합의되였다.

회의에서 로씨야대통령 울라지미르 뿌찐은 《우리는 보다 새롭고 보다 높은 단계의 통합에로 넘어간다. 이것은 우리 나라들의 경제현대화와 그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과업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할수 있게 할것이다.》라고 밝혔다.

이것은 공동의 사업과 로씨야, 벨라루씨, 까자흐스딴 정부들의 긴밀한 호상협조의 결과라고 하면서 그는 국가의 자주권을 완전히 수호하면서 보다 통일적인 경제적협력과 협동을 보장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전문가들은 유라시아경제동맹이 로씨야에 대한 제재에 열을 올리고있는 미국과 서방에 대응한것으로서 앞으로 경제동맹은 유럽동맹에 당당히 맞설수 있는 경제통합체로 발전할수 있다고 보고있다.

지난 11월 21일 뚜르크메니스딴의 아슈가바뜨에서 진행된 독립국가협동체 정부수반리사회 회의에서는 원유 및 원유제품시장에서의 경쟁 및 가격형성문제를 비롯하여 광범한 문제들이 토의되였으며 30건의 협조문건들이 채택되였다.

로씨야와 까자흐스딴사이에 선린 및 동맹자관계에 관한 조약과 두 나라 공민들의 체류질서를 간소화할데 대한 정부간협정이 채택되였다.

또한 로씨야와 끼르기즈스딴은 쌍무경제협조를 발전시키기 위해 5억US$의 자본을 가진 개발기금을 창설하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로씨야는 미국과 서방의 군사적압력에 맞서 안전보장분야에서의 협조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다.

11월 11일 모스크바에서는 독립국가협동체 국방상리사회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성원국들사이의 군사협조분야에서 나서는 문제들과 2015년에 합동군사훈련을 진행할데 대한 문제 등이 토의되였다.

로씨야국방상 쎄르게이 쇼이구는 회의에서 독립국가협동체 나라들사이의 군사적련계를 발전시키는 목적은 호상신뢰를 두터이 하고 선린관계를 유지하기 위한것이라고 말하였다.

이에 앞서 10월 21일 독립국가협동체 성원국들의 련합반항공훈련이 벌어졌다.

훈련에는 전투기와 습격기, 폭격기를 포함한 약 100대의 비행기와 직승기, 160여개의 전파탐지구분대들과 40여개의 대공미싸일구분대들을 비롯하여 9 000여명의 군인들이 참가하였다.

훈련과정에 독립국가협동체 성원국 반항공련합체계의 믿음성과 효과성이 다시한번 확인되였다 한다.

외신들은 앞으로 여러 분야에서 지역나라들과의 협력을 가일층 발전시켜 미국과 서방의 제재책동을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리려는 로씨야의 움직임이 보다 강화될것으로 보인다고 평하고있다.

【조선중앙통신】

유럽의 독자성은 어디로 갔는가

자주성은 나라와 민족의 생명이다. 그러나 자주적대를 세우는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 오늘의 유엔무대를 보라. 특정국가의 강권에 국제법이 왕왕 밀리우고 정의를 오도하는 철면피한 광대놀음이 공공연히 벌어지고있다.

대조선《인권결의》는 추종과 아부로 살아가는 어중이떠중이들에 의해 고안된 정치협잡품이다. 주견도 속대도 없이 미국의 지휘봉에 놀아난 가련한 허재비들속에는 유럽동맹 성원국들도 있다.

국제사회는 유럽동맹이 떠들던 독자성에 대해 한두번만 들어오지 않았다. 그 독자성이란 본질에 있어서 대미의존에서 벗어나 단합된 힘으로 유럽의 리익에 맞게 정책을 실시한다는것이였다. 실지로 유럽동맹은 지역의 통합을 위해 오래고도 간고한 길을 걸어왔다고 할수 있다.

유럽동맹의 전신은 1967년에 발족된 유럽공동체이다. 유럽공동체에 망라되여있던 서유럽나라들은 쏘미사이의 심각한 정치군사적대결로 세계가 량극화되였던 그 시기 미국에 의존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미국에 정치, 군사, 경제적으로 종속되여 국제무대에서 미국과 보조를 같이하였다.

랭전종식후 사정은 달라졌다. 서유럽나라들은 전대륙적인 통합의 길을 모색하였다. 반면에 《유일초대국》으로 자처해나선 미국은 유럽에 대한 간섭의 도수를 높였다. 나토안에 유럽나라들을 단단히 얽어매고 저들의 일극세계화실현에 복종할것을 요구하였다. 유럽나라들속에서는 경제일체화와 함께 정치적독자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날로 높아졌다. 1992년 외교, 안보분야에서 공동보조를 취하는것을 주요목적으로 정한 마스뜨리흐뜨조약이 채택된것, 1993년 11월 유럽공동체가 유럽동맹으로 개칭된것, 동유럽나라들이 유럽동맹에 가입하고 2002년부터 지역단일화폐인 유로가 정식 류통된것 등은 그러한 노력의 결과라고 할수 있다.

2007년 11월 유럽동맹 교통상회의에서 최종승인된 갈릴레오계획도 마찬가지이다. 정치적으로 볼 때 이 계획은 대미의존에서 벗어나 독자성을 실현하는 문제와 직접적으로 련관되여있었다.

유럽동맹은 미국의 전지구위치측정체계에 의존하여왔다. 미국은 전지구위치측정체계의 핵심을 틀어쥐고 일체 비밀에 붙였다. 그리고 유럽나라들에 체계신호수감설비 등을 비싼 값으로 살것을 요구하였다.

미국은 1990년대에 있은 페르샤만전쟁과 발칸전쟁때 유럽이 저들의 전지구위치측정체계에 매인것을 악용하여 유럽사람들을 골탕먹이였다. 이것은 유럽동맹의 감정과 자존심을 상하게 하였다. 유럽동맹은 자기식의 위성항법체계를 개발하는 길에 나섰다.

경제적측면에서 갈릴레오계획추진은 유럽동맹이 방대한 시장을 미국에 그냥 빼앗기는가, 빼앗기지 않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된다. 미국이 갈릴레오계획을 못마땅해하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뒤틀린 심기를 드러내놓은것은 우연하지 않다. 정치, 군사, 경제, 과학기술 등에서 독자성을 실현하며 자기의 지위와 역할을 강화하려는 유럽동맹의 지향과 움직임은 많은 경우 국제사회의 지지와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십년공부 나무아미타불이라는 말이 있다. 이번 유엔총회에서 유럽동맹 성원국들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 빚어낸 정치사기극에 발벗고나섬으로써 다극화로 나아가는 오늘의 세계에서 하나의 극을 형성하여 주대있는 정책을 실시할듯이 광고하며 등장한 유럽동맹의 영상과 체면에 스스로 먹칠을 하였다.

우리에 대한 대결과 적대의식에 환장이 되여 신성한 국제무대까지 더럽히며 광란적인 반공화국《인권》소동을 일으키는 미국의 망동에 대해서는 구태여 언급할 필요가 없다. 애당초 우리 공화국을 적으로 규정하고 국가주권자체를 인정하지 않고있는 미국이다.

유엔의 력사를 거슬러보아도 당사국과의 대화도, 당사국에 대한 한차례의 방문도 없이 《조사보고서》라는것이 부랴부랴 만들어지고 그에 기초하여 총회《결의》가 강압통과된적은 없다.

국제법도 국제관례도 무시한 이런 《결의》조작놀음에 《자유》와 《민주주의》, 독자성을 외워온 유럽동맹 성원국들이 미국의 하수인이 되여 놀아댔으니 이런 눈뜬 청맹과니들이 어디에 있겠는가.

유럽동맹은 그 누구의 《인권》을 론하기에 앞서 자기들을 대상으로 미국이 감행한 특대형인권유린범죄부터 문제시해야 할것이다.

미국가안전보장국이 오래전부터 자국에 주재하고있는 도이췰란드, 프랑스, 이딸리아를 비롯한 수십개 나라 대사관들에 도청장치를 설치하거나 특수한 안테나를 리용하여 체계적으로 정탐활동을 벌려왔다는데 대해서는 영국신문 《가디언》, 프랑스의 AFP통신, 미국의 AP통신을 비롯한 출판보도물들이 이미 공개하였다.

미국가안전보장국은 유럽의 국가수반들은 물론 유럽동맹수뇌자회의가 진행되는 브류쎌주재 유럽동맹본부에도 도청장치를 설치하고 콤퓨터 및 전화망에 침투하여 정상적으로 자료를 뽑아내군 하였다. 진실한 동맹관계니, 벗이니 하던 미국에 의해 속옷까지 벗기운 신세가 되여 톡톡히 망신당한 유럽동맹이 자존심도 없이 지금에 와서는 극악한 범죄자의 《인권》타령에 춤추고있으니 이것을 어떻게 보아야 하겠는가. 유럽동맹은 저들이 표방해온 《인권노력》이 진정한 인권향상을 위한것이 아니라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 대한 추종이고 아부였다는것을 스스로 드러내놓았다.

미국의 꼭두각시로 놀아난 유럽동맹은 수치를 느껴야 한다.

본사기자 배 금 희

ㄱ-411886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 집 위 원 회